

2011 Theme Book



손에 잡히는 포켓 테마북

* 참고사항: 12M 테마베타계수

표에 나오는 12개월 베타계수는 2010년 1년 동안 해당 종목들로 구성된 테마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 특정종목의 기간별 베타계수가 높을수록 그 기간 동안 해당 테마가 상승 또는 하락 시 그 종목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컸다는 의미임.

이 책자는 당사의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내한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이 책자에 열거된 종목들은 추천종목이 아니며 각 주제별로 나열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 책자는 다양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종목이나 시기의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책자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전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리서치센터

투자정보부

팀장 추희엽 ☎) 3276-6266, 6267

연구위원 정훈석 ☎) 3276-6232, 4126

연구원 박가영 ☎) 3276-5979

연구원 허영주 ☎) 3276-6238

수석연구원 한지형 ☎) 3276-6236, 4152

연구원 허은경 ☎) 3276-6237

연구원 손시호 ☎) 3276-6164

손에 잡히는 포켓

테마북 2011

AM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6
NFC(근거리무선통신) 10
원자재(금/구리) 17
WPM(World Premier Materials).....20
나노기술26
사물지능통신(M2M)36
스마트 TV48
철도/GTX/지하도로 71

출산장려정책 78
클라우드 컴퓨팅80
태블릿 PC82
평창 동계올림픽87
희소금속.....95
히든챔피언(강소기업)97
LTE(Long Term Evolution)99

2011년 대기업 계열사 신규상장 수혜주 ..2
3차원 영상(3D)4
LED8
SI(신종플루)/AI(조류독감)/구제역..... 11
PCB(인쇄회로기판) 14
SNS(Social Network Service) 16
U-헬스케어 18
교육주(인터넷 교육)22
국내상장 중국기업.....24
남북경협/개성공단/대북송전.....28
디지털 셋톱박스(Digital STB) 30
바이오시밀러/바이오메터 32
비료/농약(애그플레이션) 34
수자원38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40
스마트폰/휴대폰부품42
원자력 발전45

신약개발업체 50
신재생에너지(태양광) 52
신재생에너지(풍력) 54
엔터테인먼트(게임) 56
우주항공.....58
의료기기.....60
자원개발.....62
전자책(e-book)64
전쟁/방위산업66
조선기자재68
줄기세포/세포치료제.....74
지능형로봇76
터치스크린85
하이브리드카/전기차(2차 전지)89
한미 FTA/한-EU FTA/한-인도 CEPA..91
환경(유해가스저감/탄소배출권)93



2011년 대기업 계열사 신규상장 수혜주

지난 몇 년간 대기업 계열사들은 인수 자금 등 마련을 위해 계열사 상장을 추진했지만 서브프라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상장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기 이후 KOSPI가 빠르게 지수를 회복함은 물론 과거 역사적 신고가까지 넘어서는 등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면서 대기업 주도로 계열사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통 계열사가 상장할 경우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잡혀 있는 낮은 장부가와 상장 이후 주가 차이만큼의 상장차익으로 계상되어 상장 예정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긍정적이다. 보유 주식의 상장차익이 동 회사들에 투자하는 이유 전부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가장 먼저 상장한 대기업 계열사 종목은 두산 그룹의 두산엔진이다. 두산엔진은 지난 1월 4일 상장되었다. 두산엔진의 상장으로 동사의 지분을 보유한 두산중공업이 동시에 부각된 바 있다. 현대그룹의 현대위아도 이르면 2011년 2월 중순을 목표로 상장준비를 하고 있다. 현대위아의 최대주주는 현대차와 기아차로 각각 39.5%, 39.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상장 이후 장부가와 차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이 7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비전은 상반기 중 상장을 계획중이다.

2011년 하반기나 연말에 상장을 예정중인 대기업 계열사도 많다. 삼성SDS는 하반기 중 상장을 예정하고 있으며 삼성석유화학은 연말을 목표로 상장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 외 코오롱그룹의 코오롱플라스틱, 포스코계열사인 포스코건설, 유진그룹사인 하이마트 등이 대기하고 있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은 상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상장(예정)사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지분율)	12M
현대위아(2월 중)	현대차	005380	현대위아의 39.5% 보유	1.09
	기아차	000270	현대위아의 39.3% 보유	1.01
CJ헬로비전 (상반기 중)	CJ오쇼핑	035760	CJ헬로비전의 77.9% 보유	0.90
GS리테일(연말)	GS	078930	GS리테일의 65.8% 보유	1.13
	LG상사	001120	GS리테일의 32% 보유	0.98
	GS건설	006360	GS리테일의 1.7% 보유	1.32
포스코건설(연말)	POSCO	005490	포스코건설의 89.5% 보유	0.83
하이마트(연말)	유진기업	023410	하이마트의 44.4% 보유	0.95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인더스트리	120110	코오롱플라스틱의 100% 보유	N/A
삼성SDS(연말)	삼성전자	005930	삼성SDS의 21.7% 보유	0.87
	삼성물산	000830	삼성SDS의 18.3% 보유	0.88
	삼성전기	009150	삼성SDS의 8.4% 보유	1.04

3차원 영상(3D)

3D는 Three Dimensions의 약자로 3D 기술을 이용한 입체영상기술은 기존의 가로와 세로로 표현되는 2D 기술의 평면적인 한계를 넘어 깊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입체감을 일으키는 요인은 사람의 눈이 가로 방향으로 약 65mm 떨어져서 존재하여 나타나게 되는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이다. 좌우 눈이 각각 서로 다른 2차원 화상을 보게되고, 이 두 화상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뇌는 이를 정확히 서로 융합하여 본래 입체 영상의 깊이감과 실제감을 재생하는 원리이다.

3D기술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매체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되는 등 현재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D 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삼성, LG그룹 등이 적극적으로 R&D에 참여하고 있다.

2009 전자통신동향 분석에 의하면 방송, 게임, 영화 등 3D 영상 서비스 부문은 연평균 24%씩 성장해 2027년까지 총 14조 7,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D 영상 시장은 게임이 주도, 2012년까지 연평균 21%씩 성장해 6,6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방송서비스는 2015년부터 열려 2027년까지 기존 방송 매출에서 2조 200억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2010년 4월에 정부는 유망 3D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D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2013년까지 3D TV 방송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3D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3D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3D산업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다. 3D산업통합기술로드맵은 3D기기·장비, 3D융합서비스, 3D콘텐츠, 3D방송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동향과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2019년까지 3D산업 R&D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한편 디스플레이서는 2011년 3D TV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5.6배 성장한 1800만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9100만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5년에는 3D 전용 안경없이 3D TV 시청이 가능한 무안경 3D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잘만테크	090120	독자 개발한 22인치 3D 모니터를 일본 후지필름사에 수출. 리얼스코프의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3D모니터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3D입체영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망	1.85
케이디씨	029480	3D 입체영상 전문업체로 극장용 디지털 입체시스템 등을 공급. 3D 전문기업 마스터이미지(21.5%), 리얼스코프(41%)지분 보유	1.65
대국	042340	3D 콘텐츠제작업체인 빅아이엔터테인먼트 지분 46% 보유	1.47
아이스테이션	056010	PMP, 네비게이션 등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제조업체로 극장용 디지털 입체시스템 및 3D영화 감상시 착용하는 특수안경 등을 공급. 3D전문기업 리얼스코프 지분 보유	1.44
네오애플	096040	임베디드 그래픽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09년 4월 모바일용 3D 엔진 개발업체인 리코시스를 인수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Smax™' 출시	1.11
티엘아이	062860	LCD 패널 핵심 부품 제조. 대형 3D TV용 Timing Control (TV용 비메모리 반도체)판매. 2009년 지분 50%를 인수한 자회사 이시티를 통해 3D 변환칩 상용화 추진	1.03
에스엠	041510	음악전문엔터테인먼트 업체로 삼성전자와 함께 3D 콘텐츠 사업을 추진 중	0.93
하이소닉	106080	3D 액추에이터 모듈 개발 완료	0.92
레드로버	060300	3D 전문업체로 3D 관련 하드웨어 및 콘텐츠 개발	0.68
코텍	052330	글로벌 카지노용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업체로, 뉴질랜드 퓨어덱스사와 3D 기술협력을 통해 카지노 시장용 15인치 모니터와 일본 시장용 24인치 게임 모니터를 시작으로 3D 모니터 시장에 진출	0.60
대원미디어	048910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2006년부터 아이언 키드, 큐빅스 등 3D 풀 애니메이션 작품 다수 제작 3D 시장 확대시 3D 콘텐츠 매출 증가 기대	0.58
팅크웨어	084730	3차원(3D) 전자지도를 탑재한 네비게이션 생산	0.54
CJ CGV	079160	3D 제작 영화의 출시 및 3D 관람 수요 증가 수혜 기대	0.18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AM 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백라이트에 의해 빛을 발하는 LCD와는 달리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스스로 삼원색의 빛을 내는 유기소재로 화면이 구성돼있어 TFT-LCD보다 동영상 응답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화면 전환속도, 색 재현율과 명암비도 월등하다. 또한 저소비전력 및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구현은 물론, 소면적에서부터 대면적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고휘도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해 향후 TFT-LCD를 대체하여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M OLED 패널은 일반 LCD 패널에 비해 가격이 80% 이상 비싸지만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휴대기용 AM OLED 패널 시장의 규모는 104억 달러, 노트북PC 및 태블릿PC용 패널 시장의 규모는 68억 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양산 라인이 대형화되면 AM OLED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글로벌 AM OLED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 기업들이 잡고 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Samsung Mobile Display)는 2005년 4세대 라인을 구축하고 2007년 2월에 양산을 시작해 현재 세계 AM OLED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SMD는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생산성이 높고 대형 제품 출시에 유리한 5.5세대 라인을 건설했으며 2012년 8세대 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M OLED사업을 통한 LCD시황 악화를 극복한다는 전략으로 2011년 AM OLED 사업에 약 5.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어 삼성그룹의 OLED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4세대 라인을 구축했으나 전략적으로 LCD위주의 생산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AM OLED 생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AM OLED는 현재 초과공급에 대한 우려를 받고 있는 LCD나 발광다이오드(LED) 업계와는 달리 전체 공급량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시장의 고성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증설 계획을 발표한 삼성뿐 아니라 LG 등 다른 경쟁업체들도 조만간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에스엔유	080000	태양광, OLED, LCD, 반도체 등의 산업용 제조장비 전문업체로 현재 SMD와 5.5 세대 증착기 및 봉지기 개발 중	1.56
아바코	083930	LCD, OLED, PDP 등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업체 LG디스플레이의 지분참여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1.41
덕산하이메탈	077360	09년8월 (주)루디스 흡수합병을 통해 AM OLED 유기재료 사업 영위. SMD에 유기재료 공급 중	1.31
동아엘텍	088130	OLED검사장비 및 통신응용장비업체 OLED장비업체인 선익시스템을 계열사로 보유	1.24
엘디티	096870	AM OLED용 구동칩(DDI: Display Driver IC)의 설계와 판매를 하는 팹리스 업체	1.21
대주전자재료	078600	전자부품용 소재 전문제조업체로 AM OLED 청색 유기물질 개발	1.20
크로바하이텍	043590	DDI 및 TRANS/COIL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AM OLED IC 개발에 성공하여 SMD에 납품	1.16
NCB네트웍스	078150	TFT-LCD 및 반도체용 광학검사장비 전문업체 SMD와의 협력을 통해 AM OLED 검사장비 개발	1.11
AP시스템	054620	필수 AM OLED 공정인 LTPS에 적용되는 ELA장비를 SMD에 독점 공급	1.10
DMS	068790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 조명용 OLED 장비사업 추진 중	1.07
탑엔지니어링	065130	TFT-LCD 공정장비 전문업체로 GCS(Glass Cutting System), Array Tester 등 LCD 핵심공정 장비와 LED 및 OLED 장비 등으로 사업을 확장	0.98
파워로직스	047310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AM OLED) 등의 전자부품 제조	0.87
에스에프에이	056190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로 대면적 AM OLED의 핵심 장비인 증착기와 봉지기의 개발을 진행 중	0.78
주성엔지니어링	036930	ALD, LP CVD, PE CVD, MO CVD, ETCH(식각장치)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AM OLED 박막형 봉지장비 개발	0.76
토펅	108230	공장자동화 설비(FA: Factory Automation) 전문 업체로 SMD에 AM OLED 신규 라인 시스템 공급	0.60
LG디스플레이	034220	LG그룹 계열의 TFT-LCD 패널 제조 전문업체로 AM OLED 양산라인 보유	0.57
삼성SDI	006400	2007년(SMD가 설립되기 전)까지 AM OLED 양산 진행 삼성전자와 함께 SMD의 지분을 50%씩 보유	0.56
제일모직	001300	AM OLED 소재사업 진출하며 그룹내 전자소재 수직계열화 의 중심. 태양전지용 전극Paste는 중장기 성장동력	0.51

LED

2010년 LED TV 업황 부진으로 쌓였던 재고가 하반기에 소진되는 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전년대비 최소 160% 이상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회복과 더불어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CCFL타입 LCD TV와의 가격차이는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량 증대가 가격하락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시장의 성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LED TV 출하량 전망은 밝지만 칩 공급업체와 패키지 공급업체들은 판가 경쟁, 단가 하락 압력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LED TV에 이어 조명 분야에서도 LED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 LED 산업은 글로벌 전체 시장의 2~3%에 불과하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백열등 사용금지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LED 조명으로의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우리 정부는 백열등 사용을 금지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어 국내 LED 조명 시장은 2014년 전후로 본격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넷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가 LED를 광원으로 채택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 보급 확대는 LED 조명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 시점을 앞당길 캐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LED 조명은 일반 조명보다 조도가 높고 비용도 기존의 20%에 불과하여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들이 신사업으로 LED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필립스와 GE 등 해외 업체들이 LED 시장에 진출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LG, POSCO, 현대백화점 등 주요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LED 분야를 추가하였다. 2012년 기준 세계 LED 조명 시장의 규모는 3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들은 LED 조명 시장이 2009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거듭하며 2018년까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맞먹는 약 5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발표하였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루멘스	038060	LED 사업부의 매출비중은 전체의 99.5%. LED 소자, 모듈, 조명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제품 생산	1.44
LG이노텍	011070	LED 사업부 매출비중은 전체의 21.8% Epi, 칩부터 모듈/패키지까지 수직계열화 완료	1.15
와이즈파워	040670	집어등, 특수조명용 LED 조명을 제조하며 LED 사업 매출 비중 3.1%. 2010년 상반기 20억원 생산설비 투자 하였고 향후 250억원 규모의 시설 및 R&D 비용 투입할 계획	1.11
일진 디스플레이	020760	LED 기판용 사파이어웨이퍼 매출 비중 85.5%	1.10
탑엔지니어링	065130	LED fab 장비 매출비중은 전체의 17.9% LED Fab 공정상의 핵심장비인 화학증착장비, 에처 및 패키징 장비제조 및 판매	0.94
서울반도체	046890	LED TV, 조명, 핸드폰, 노트북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매출 발생. Epi, 칩, 패키지, 모듈 등 모든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0.93
한성엘컴텍	037950	LED조명 관련 매출액 비중은 12.1%. 선진국 및 국내 관공서/쇼핑몰 위주로 LED 조명 매출 발생 자회사 파워라이텍으로부터 LED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0.78
화우테크	045890	LED조명 관련 매출액 비중 82.9% LED전구 'Lumidas'를 출시하였으며 3~160와트까지 50여종 라인업 구축	0.55

NFC(근거리무선통신)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무선통신)은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의 하나로,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휴대폰에 적용될 경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은 물론 티켓팅, 사물 조작, 정보인식, 파일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어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NFC가 2011년 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제조사들이 NFC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통신사들도 이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KT가 2010년 11월 삼성전자 NFC폰을 기반으로 한 ‘쇼터치’서비스를 공개한 바 있으며, GS25와 롯데마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가맹점을 통해 NFC결제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ABI리서치에 따르면, 2012년까지 휴대폰의 21%에 NFC칩이 장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트너 역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방식 중 NFC방식이 2010년 3.2억 건에서 2015년에는 35.7억 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과 통신 결합서비스를 본격화해 모든 지급수단을 휴대폰 결제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마켓리서치(IEMR)는 2014년에는 전체 모바일 결제시장이 1.1조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며, NFC 결제서비스가 그 중 1/3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솔라시아	070300	NFC 단말기에 탑재되는 USIM 칩 개발	1.55
유비벨록스	089850	NFC를 적용한 USIM사업 추진 SK텔레콤이 실시한 NFC USIM 테스트 승인업체	1.47
케이비티	052400	KT에 가입자인증모듈(USIM) 기술의 하나로 NFC 카드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	1.40
모빌리언스	046440	휴대폰 결제서비스 업체	1.11
엠텍비전	074000	RFID 기술의 하나인 NFC 방식을 지원하는 칩셋 ‘AMEE’를 2010년 9월 출시	1.02
파트론	091700	국내 고객사에 NFC안테나 납품	1.02
SK C&C	034730	NFC를 탑재한 차세대 USIM 칩 개발 진행	0.62
삼성전자	005930	NFC칩을 개발하고 2011년 1분기부터 양산 예정	0.43

SI(신종플루)/AI(조류독감)/구제역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속칭 신종플루)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이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09년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발열, 기침 및 구토로 내원한 10세 소아의 비인두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외부로 방출된 바이러스 입자가 분무 또는 도말 형태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호흡기 분비물 외에도 설사와 같은 다른 체액에 의한 전파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7일 정도로 추정된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콧물 혹은 코 막힘, 기침,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있고 호전되기도 하나, 일부의 환자에서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계절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 중에 만성 질환자나 임신부의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신종 인플루엔자에서도 만성 질환자나 임신부가 특히 위험하다. 2009년에 새롭게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및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2010년 8월까지 약 1만 8,4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 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킨다. 조류독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감염의 주요 매개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다. 조류독감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전신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 진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체 감염사례 376건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38건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에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큰 질병이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제역 감염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감염된 소와 접촉된 모든 소를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다.

〈방역 및 백신〉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중앙백신	072020	조류독감 백신 개발 완료 업체로 신종플루 전염이 가속으로 확산시 수혜	1.99
엔케이바이오	019260	자기 유래 활성화 치료제 ‘NKM’의 신종플루 억제효과 입증	1.78
이글벳	044960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1.45
대한뉴팜	054670	타미플루 원료 합성 기술 보유업체로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중	1.27
씨티씨바이오	060590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로 인도 제약사로부터 타미플루 원료 독점권 확보	1.14
VGX인터	011000	신종플루와 조류독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DNA백신 개발 중	1.05
팜스웰바이오	043090	신종플루 치료제의 원료 생산능력 보유	1.03
바이오니아	064550	의학연구용 시약과 진단기구 전문업체로 신종플루 확진 관련 장비 및 진단키트 공급	1.00
바이오랜드	052260	신종플루 진단키트를 한국질병관리본부(KCDC)에 독점적으로 공급	0.73
일양약품	007570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주원료인 시킴산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기전의 항바이러스제 물질을 개발, 특허 출원	0.64
대성미생물	036480	항생제, 항균제, 구충제, 영양제, 사료첨가제 등의 각종 동물용의약품 150여개 품목 생산	0.63
녹십자	006280	국내 최초로 계절독감백신 및 신종플루백신 개발에 성공	0.49
SK케미칼	006120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시설 확보	0.47
유한양행	000100	자회사 유한화학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원료 생산	0.33

〈손소독세정제/마스크〉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케이피엠테크	042040	항바이러스 섬유로 마스크 개발	1.64
파루	043200	휴대용 손청결제 ‘플루’를 비롯한 생활위생용품 제조 업체	1.41
웰크론	065950	산업용섬유 전문기업으로 여과효율 95% 이상의 헤파 마스크 원단을 신종플루 마스크 완성업체에 공급	1.20
오공	045060	미국에서 신종플루 마스크 수입 및 판매	0.99
케이엠	083550	산업 및 의료용 클린 소모품 전문제조업체로 신종플루 마스크 생산	0.83
한국콜마	024720	3M의 손소독세정제 OEM 생산	0.74
고려제약	014570	손세정정보습제 ‘엑스플루’ 출시	0.74
코스맥스	044820	유한킴벌리의 손세정제 OEM 생산	0.73
보령메디앙스	014100	위생용품 제조업체	0.72

〈수입육 유통주〉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대국	042340	수입육 도소매 유통 사업 영위업체. 미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 수입육을 공급 받고 있음	1.99
에이티넘인베스트	021080	자회사로 쇠고기수입업체 케이알푸드앤컴퍼니 보유	0.55
한일사료	005860	양계, 양돈, 축우용 배합사료 생산업체 수입육 유통업체인 한국냉장의 최대주주	0.46

〈닭고기〉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마니커	027740	시장 점유율 2위의 닭고기 전문기업. 종계, 부화, 사육, 도계,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있음	1.31
하림	024660	국내 최대 닭고기 시장 선두업체로 안정된 시장지배력 보유 기존의 육계(통닭)부분 이외에도 부분육(포장육), 육계가공품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	0.92
동우	088910	닭고기 원료육 전문업체로 종계사업, 부화사업, 사육사업, 도계사업, 유통사업 영위	0.77

〈수산주〉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CJ씨푸드	011150	어묵, 맛살 등을 생산, 판매하는 수산물가공업체로 CJ 계열회사	2.20
신라에스지	025870	게맛살, 절임식품 등 판매하는 수산가공기업	1.47
동원수산	030720	대중국 투자가 많은 참치어획 원양기업	1.29
중국원양자원	900050	수산가공품 및 원양어업 영위 기업	1.17
사조산업	007160	원양어업, 식품사업, 육가공 기업	0.97
사조오양	006090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영위 기업	0.93
한성기업	003680	원양어업 및 수산식품 제조업 영위기업	0.70
사조대림	003960	맛살, 어묵 등 식품제조업 및 원양어업 영위	0.65
신라교역	004970	참치, 수산업, 원양 수산물 도매업 영위기업	0.35
동원산업	006040	국내 최대 규모의 원양어업 기업	0.26

PCB(인쇄회로기판)

PCB(Printed Circuit Board)란 페놀/에폭시 등의 절연판 위에 구리 등의 동박(Copper Foil)을 부착시킨 다음, 회로 배선에 따라 에칭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간 연결 및 부품 탑재를 위한 홀(Hole)을 형성하여 만든 회로 기판을 말한다. 즉, 절연 기판 위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주로 구리)를 형성시킨 것으로 전자부품 탑재 시 전기회로를 구성하여 작동한다. PCB는 소형 가전제품에서부터 컴퓨터, 통신기기, 산업용 기기 및 군사용 기기에 이르는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어 전자제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국내 PCB 업계는 지난 2003년 이후 일본의 고부가시장 점령과 중국 및 대만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1년 반 동안은 파생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많은 PCB 업체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악화로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의 위기까지 몰리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수년간 성장 둔화로 불황을 겪었던 국내 PCB 시장은 2009년말부터 세트업체의 휴대폰 및 LCD TV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IT기기의 고속화, 대용량화에 따라 부가가치가 큰 휴대폰용, 반도체용 PCB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 자동차, 컴퓨터, 산업용, 의료기기용 PCB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국내 PCB산업 규모는 총 7조원대로 전년대비 약 14.1% 성장했으며 2010년은 5% 성장한 약 7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PCB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관련 원천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반도체용 PCB 소재 등 3개 개발 과제에 2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첨단 고부가가치 PCB 개발을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국산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를 근간으로 한 PCB 산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뉴프렉스	085670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전문기업으로 PCB 광전 회로 정렬에 관한 특허 취득. LED TV용 부품인 Metal PCB로 수익원 다각화	1.71
심텍	036710	반도체용 PCB전문제조 기업으로 SD카드, microSD카드 등 NAND Flash 기반 제품의 PCB생산. 국내외 유수의 메모리 반도체업체에 모듈 PCB와 패키지 Substrate 공급	1.34
이수페타시스	007660	이수그룹 계열의 초고다층 PCB 전문 제조업체로 네트워크장비용 PCB를 주력으로 생산. 네트워크용 MLB는 글로벌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루슨트, 시스코 등에 납품	1.21
에이엔피	015260	다층 인쇄회로기판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가정용 인터넷전화 사업 진출	1.19
엑큐리스	048460	산업용 PCB전문제조 기업으로 PDP 및 LCD TV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용 PCB생산	1.14
디에이피	066900	이동통신단말기용 인쇄회로기판인 휴대폰용 빌드업 PCB전문업체	1.11
인터플렉스	051370	영풍 계열의 연성회로기판(FPCB) 전문 업체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휴대폰용 FPCB공급. 국내 최초로 상용 가능한 광FPCB 기술 선점	1.07
대덕전자	008060	휴대폰, LCD, 반도체용 PCB를 생산하며 고사양의 하이엔드급 핸드폰에 사용되는 PCB의 경우 삼성전기와 동사가 시장을 양분	0.87
대덕GDS	004130	대덕그룹 계열의 PCB전문 생산업체로 일반가정용 PCB및 디지털 TV, DVD-Player, DVD-ROM, LCD 등의 PCB 생산	0.85
삼성전기	009150	삼성전자 계열의 종합전자 부품업체로 다층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 다양한 PCB, MLCC, ISM, Tuner 및 네트워크 부품 등을 생산	0.74
코리아써킷	007810	영풍 계열의 PCB전문생산업체로 초다층 빌드업 및 패키지 채용 PCB 양산	0.74
현우산업	092300	PCB전문제조 기업으로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에 납품 자동차 전장 및 통신기기 업체 등으로 매출처 다변화 추진	0.55
이큐스앤자루	058530	PCB 자동화장비 전문기업으로 IT기반의 신약개발 토탈 시스템 부문에도 진출	0.48
엑트	131400	모바일폰과 디스플레이 장치에 탑재되는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PCB) 생산업체	NA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개인의 표현욕구가 강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고, 친분관계를 유지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점점 발달하고 있다. 웹상의 카페, 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진 집단이 그룹화하여 폐쇄적인 서비스를 공유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나 자신 즉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싸이월드를 들 수 있다. 1999년 시작된 미니홈피 싸이월드는 이용자들이 개인의 일상사와 삶을 표현하고 일촌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서로 엮이면서 확장되는 서비스이다. 그밖에 해외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이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SNS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서비스와 형태도 다양해졌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통화, 회의,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SNS에 부가되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SNS는 향후 무궁무진한 홍보 매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SK컴즈	066270	해외 SNS인 Facebook과 Twitter에 대응하기 위해 C로그 오픈	1.69
모빌리언스	046440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에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공	1.45
인터파크	035080	하프타임콘텐츠로 소셜커머스 사업 진행. 그 외에 e-coupon, 모닝, coffee 등 e-commerce 사업 진행 중	1.15
안철수연구소	053800	SNS 악성코드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안 백신 개발 보급	1.05
다음	035720	다음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 진출	0.67
웅진씽크빅	095720	Familyceo 콘텐츠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 진행 향후 교육콘텐츠를 접목시켜 사업을 확대할 계획	0.53
NHN	035420	Twitter와 맞설 수 있는 국내판 마이크로 블로그인 Me2Day 운영	0.45

원자재(금/구리)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실수요 변화 및 재고 수준과 수급상황, 환율, 선물거래를 통한 투기 수요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철금속 가격은 실질 수요와 공급이 없더라도 달러화 변동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의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구리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구리 소비국으로 부상, 구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 구축에 27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구리 수요의 구조적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에 인플레이션 헷지 차원에서의 금수요 증가와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가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다변화, 금을 편입하는 간접투자상품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금 수요는 구조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2011년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를 넘어 1,700~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서원	021050	업계 3위의 동 가공업체	1.87
대창	012800	국내 최대의 황동봉 생산업체	1.86
이구산업	025820	국내 동판 2위 생산업체	1.68
애강리메텍	022220	스크랩과 슬러지 등에서 귀금속과 비철금속을 재생산하는 도시광산업 영위	0.95
디아이	003160	카자흐스탄 금광 개발	0.85
고려아연	010130	아연 및 연 등의 종합비철금속 업체로 금 부산물 생산	0.82
풍산	103140	국내 최대의 비철금속 업체	0.82
엠케이전자	033160	카자흐스탄 동광 및 금광 개발	0.78
코코	039530	금 · 다이아몬드 · 사파이어 및 기타 광물질의 생산 · 가공 · 판매업체인 C & K Mining Inc. 을 계열사로 보유	0.77
한성엘컴텍	037950	자회사 AGM을 통해 몽골에서 금광 개발	0.60
영풍	000670	아연괴 생산업체	0.52
LS	006260	동제련업체인 LS-니코동 제련 보유	0.50

U-헬스케어

U-헬스케어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 관리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기관은 원격진료, 질병모니터링, 모바일 건강관리, 의료정보 온라인 제공 등 각종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의료정보(생체신호, 건강상태 등)가 건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면 건강정보시스템이 이를 분석하고, 주치의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U-헬스케어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IT기술과 접목시킨 U-헬스케어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2009년 기준 세계 U-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3,111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시장이 2013년에는 4,402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U-헬스케어가 본격화되면 관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U-헬스케어는 원격 의료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 사이에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 중간 매개체로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측정하는 개인용 의료기기, 측정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장비,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시스템 등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의료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는 기존에 있었던 반면 개인용 의료기기, 통신장비, 시스템 등은 사실상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이 향후 5년간 1조 997억원(서비스 부문 9,392억원, 장비 부문 1,60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서 장비는 개인용 의료기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신장비 및 시스템을 감안하면 시장은 2012년 약 1.2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과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U-헬스케어는 기존 서비스 대비 비용, 편의성,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신개념의 의료서비스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다.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존의 의료소비 형태 및 의료시장 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인성정보	033230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의료보건사업 전문업체로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 제공. 대구시와 U헬스케어 MOU를 맺고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68
유비케어	032620	SK케미칼의 자회사로 병·의원용 EMR(전자의무기록)과 약국경영 IT 솔루션을 제공. 사내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대행, SK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	1.61
비트컴퓨터	032850	의료정보시스템 전문기업. 국내 19개성, 마산시 및 충청남도과 U헬스케어 구축계약 체결. 영상EMR 시장점유율 70% 이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영상 EMR에서 Full EMR로 확장	1.49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솔본그룹 계열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체	1.26
인포피아	036220	혈당측정기 및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생산업체로 병원용 혈당측정기 및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기 출시 전립선암 진단기 및 갑상선호르몬 측정기 개발 중	1.15
나노엔텍	039860	Lab-On-a-Chip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세포분석 부문, 유전자전달 부문) 분야와 진단의료(현장진단 부문, 유전자진단 부문) 분야의 사업 영위	1.04
코오롱아이넷	022520	코오롱그룹 계열의 토털 IT서비스 기업으로 U-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 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고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0.99
휴비츠	065510	자동검안기, 디지털리프렉터, 렌즈가공기 등 안광학의료 기기 전문업체로 안과용 진단기기인 세극등 현미경 출시	0.75
바이오스페이스	041830	체성분 분석기를 주력으로 하는 의료기기제조업체로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및 송도 주상복합에 U-헬스케어 기기 공급	0.73
차바이오앤	085660	체세포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바이오기업	0.65
LG생명과학	068870	LG그룹 계열의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업체	0.42
피제이전자	006140	전자제품 임가공 생산전문회사로 GE 브랜드로 판매되는 초음파진단기와 IC카드 조회기 생산	0.23
솔고바이오	043100	생체용금속, 수술용 의료기구, 헬스케어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메디칼전문회사	NA

WPM(World Premier Materials)

2010년 9월말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WPM(World Premier Materials)을 선정해 10개 사업단 구성을 완료했다. 2018년까지 정부자금 1조원이 연구·개발에 지원되며,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사업단은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WPM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 상용화함으로써 2018년까지 약40조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WPM 사업단의 출범은 현재 소재 분야 세계 6위인 우리나라가 2018년 세계 4대 소재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WP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대기업 56개, 중견 중소기업 92개, 대학 및 연구소 104개 등 252개 기관이 참여하며 전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은 22%, 중소 중견기업 및 대학, 연구소가 전체의 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WPM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약 3만 2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약 40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에도 매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관련업계는 WPM이 향후 국가경제 신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PM 10개 사업단 기대효과, 사업화 투자 금액(2018년)

(단위: 억원, 명)

10 대 사업단 명	세계시장	매출		고용 창출	특허	사업화 투자 (‘18년까지)
		국내	해외			
스마트 강판소재	65,835	1,915	318	1,402	110	2,215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507,892	26,976	15,355	1,543	156	14,812
나노카본 복합소재	724,836	53,602	58,166	1,770	184	38,678
지능형 멤브레인소재	202,026	9,278	47,111	2,100	120	7,315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기판	18,700	2,283	3,139	1,784	48	3,663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105,380	18,666	20,600	10,086	109	12,149
바이오 메디칼소재	221,188	5,633	16,831	3,517	98	1,530
초고순도 SiC 소재	37,774	10,160	12,676	4,135	241	6,643
수퍼 사파이어 단결정	79,464	43,245	25,261	3,717	74	13,743
프리미엄 케톤소재	355,456	4,076	14,212	1,736	112	4,305
계	2,318,551	175,834	213,669	31,790	1,252	105,053

자료: 지식경제부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아이컴포넌트	059100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개발	1.85
대주전자재료	078600	태양전지용 전극 Paste와 2차전지 및 MLCC 원천소재 개발	1.57
잉크테크	049550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 개발 분야의 세부주관기업으로 선정	1.47
아미노로직스	074430	바이오메디컬 소재 사업단의 주관 사업자	1.42
오스템	031510	스마트강판과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등 2개 사업에 참여	1.38
LG이노텍	011070	초고순도 SiC 소재 사업을 주관	1.12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사파이어 기판 분야에 참여	1.08
SKC솔믹스	057500	세라믹 소재와 태양광용 웨이퍼사업 확대	0.98
웅진케미칼	008000	멤브레인에서 역삼투막과 정밀여과막 사업 영위	0.90
효성	004800	프리미엄 케톤소재사업 주관	0.86
코오롱인더	120110	아라미드 생산규모 세계 3위	0.84
LG화학	051910	나노카본 복합소재 사업 주관	0.75
삼성SDI	006400	고성능 이차전지소재 사업 주관	0.73
포스코강판	058430	스마트강판 사업 참여	0.68
애경유화	006840	멤브레인소재와 2차전지소재 등 2개 사업 참여	0.64
포스코켐텍	003670	2차전지소재 사업 참여	0.63
제일모직	001300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기판 사업을 주관하고, 나노복합소재·멤브레인소재 사업에도 참여	0.61
POSCO	005490	스마트강판과 초경량마그네슘소재 등 2개 사업을 주관하고 초고순도SiC소재사업에도 참여	0.47

교육주(인터넷 교육)

2010년 한해 교육산업은 내수경기호전 및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이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실적 악화는 정부의 사교육 규제를 위한 각종 입시정책이 실효성을 거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의 입시위주(대입 입시, 특목고 입시 등) 사업 모델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모델 및 모바일 콘텐츠 등 신규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교육 업체들을 위주로 교육업계는 재편성 될 전망이다. 특히 각종 스마트 기기들의 확산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보유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서적 및 유아/아동 관련 교육 관련사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대학 입시의 가장 큰 변화점은 수시 선발 비중 및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이다. 이러한 입시 전형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전형요소 도입에 따른 수능 영향력 약화이다. 수시에서 학생부, 논술, 특기가 중심 전형요소로 채택되고, 수능은 이에 반영하지 않거나, 등급제로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학들의 동향으로 미루어보아, 대학 입시 전형의 다향화와 이에 따른 수능 영향력 축소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대학교 입시 관련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전망이다. 선택과목 축소, 수능 난이도 별 유형 선택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선진화 방안’은 탐구 영역 매출 하락 및 수능에 대한 부담감 감소 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사교육에 대한 지출 감소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1학년도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각종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일체 금지하고자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변경되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영어 내신성적 중요성 확대와 기존에 당락을 좌우한 각종 듣기평가 및 구술 면접, 인증시험(TOEIC 등) 및 경시대회 성적 이용 금지이다. 이로 인해 외고와 국제고 입시 및 영어 사교육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확인영어사	034010	초·중등부 대상의 영어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관과 영어체험 센터에 영어학습 콘텐츠 설계 및 공급	1.57
에듀박스	035290	온·오프라인 영어교육 전문업체로 방과후 컴퓨터 교실과 영어프랜차이즈 사업 영위	1.50
아이넷스쿨	060240	통신학습, 온라인정보제공, CTI(컴퓨터통신통합-음성시스템) 관련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	1.50
디지털대성	068930	대성학원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 제공 교육업체로 중·고 재학생 전문학원인 '대성N스쿨'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제넥스' 및 '리딩게임' 운영	1.49
크레듀	067280	영어능력 평가시험 OPIc 및 이러닝 사업업체로 중등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크레듀엠 운영	1.43
예림당	036000	2009년 6월 예림당을 흡수합병해 웨스텍코리아에서 예림당으로 상호 변경, 초등학생 대상 히트 교재 Why? 시리즈 판매	0.94
청담러닝	096240	상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말하기 전문 영어교육업체. 온라인, 교재, M러닝 등 콘텐츠 매출 비중 확대	0.69
삼성출판사	068290	유아동 출판물 전문업체로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지 업체인 와이즈캠퍼드컴을 자회사로 보유. 2010년부터 초등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교재 사업 본격화	0.59
대교	019680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을 통한 교육업체로 '눈높이 교육' 운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오프라인 학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중	0.56
웅진씽크빅	095720	국내 1위 학습지 업체. 영어사업부문 신규투자 확대로 플러스어학원을 중심으로 직영점 증가	0.55
비상교육	100220	도서출판 및 인쇄업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최근 초등학생 출판 관련 사업을 신규 런칭하였으며 교과서 채택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음	0.52
능률교육	053290	e-러닝서비스 제공하는 영어교육 출판 전문업체로 한국야쿠르트에 피인수. 2010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 교과서 심사에 참여	0.46
메가스터디	072870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업체로 온라인 수능강의 M/S 약 70% 수준의 시장장악력 보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오프라인 교육 수요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매출 증가	0.39
YBM시사닷컴	057030	B2B 온라인 교육 중심의 외국어 교육업체로 TOEIC 시행 지난해 말 초·중등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흡수합병	0.23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정상어학원으로 알려진 영어 교육업체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CHESS 중심으로 직영점 확대 2010년부터 중등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	0.15

국내상장 중국기업

2010년 말 현재 국내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14개이다. 2007년 IT 업체인 3노드 디지털을 시작으로 태양광업체인 성유광전까지 제조, 수산,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공모 청약 당시에는 최대 522:1, 평균 189: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국내 상장 중국기업은 주가 흐름은 부진한 모습이다. 2009년 초 연합과기 사태 등 감사거절 루머로 인한 퇴출 위기가 있었고, 2010년 말 중국원양자원 유상증자 번복 및 편법상장 논란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편견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중국기업의 주가부진은 ‘차이나 디스카운트’ 라고 통칭된다. 주가부진의 이유에는 낮은 시가총액으로 인한 스몰캡 디스카운트와 중국기업이라는 편견이 혼재되어 있다. 편견은 주로 수치와 공시에 대한 신뢰성, 상장 요건, 소액주주 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 중국기업의 경험 부족,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IR 및 공시의 미숙함도 한 몫했다. 근거 있는 디스카운트는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편견이 부른 편견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상장시 중국법인은 국내법인보다 더 까다로운 질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감사인은 Big4 회계법인에 한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중국원양자원 실제 주주 논란은 국적과 상장지가 다른데서 생긴 제도의 차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했던 방법상의 문제로 인정하는 선에서 논란이 봉합된 상태이다.

가중된 편견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 중국기업은 저점에서 재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조정이 과도했던 측면과 더불어 중국 내수성장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가 특정 모티브를 기반으로 일제히 상승했던 과거와는 달리 실적과 펀더멘털이 뒷받침된 종목 위주로 선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0년 7~9월 간 실적을 공시한 10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53.0%,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4.8%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연합과기	900030	구두/운동화용 합성 및 인조피혁 생산업체	1.54
중국식품포장	900060	식품 및 음료용 3 piece can을 생산하는 홍콩소재 지주회사. GDP 증가와 핵가족화, 위생의식 증대로 캔식품 수요 급증. 고객사와 동반한 중서부지역 현지화 전략	1.39
화풍집단 KDR	950010	테릴렌 천, 폴라 천 재료 가공 사업 영위 주요 수요처는 필리핀 시장과 중국	1.36
중국원양자원	900050	우럭바리, 상어류 등 고급어종에 특화된 원양어업 전문기업	1.05
3노드디지털	900010	스피커 및 IT 주변기기를 제조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지주회사	0.94
차이나그레이트	900040	스포츠용품 제조 자회사를 보유한 중국계 지주회사 주력 제품은 스포츠화지만 스포츠 의류 비중 확대	0.92
중국엔진집단	900080	모터사이클, 잔디깎이, 자동차용 기어 생산업체	0.83
코웰이홀딩스	900020	카메라 모듈과 광픽업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지주회사	0.55
글로벌에스엠	900070	IT기기용 초정밀 나사(스크류, 리드스크류, 샤프트) 생산업체. 케이만군도 소재	0.42
차이나킹	900120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한 중국계 지주회사. GMP 수준의 생산시설에서 기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식품 생산. 신제품 출시, 동충하초 원재료 유통	N/A
차이나하오란	900090	제지 및 폐지업체를 자회사로 보유한 홍콩소재 지주회사 폐지, 포장용 백판지로 인한 매출과 더불어 올해 탈잉크 펄프로 인한 신규매출 발생	N/A
성웅광전	900150	중국 태양광 모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홍콩소재 지주회사. 태양전지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을 일괄생산하는 수직계열화 수립	N/A
웨이포트	900130	톱류, 제초기류 등 동력식 수지공구 및 원림공구 생산 업체	N/A
이스트아시아 스포츠	900110	중저가 위주의 스포츠 신발 및 의류를 생산하는 홍콩소재 지주회사	N/A

나노기술

나노기술이란 나노 미터의 극미세 영역에서 물질을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기능 및 시스템을 만드는 극 미세가공 과학기술을 일컫는다. 측정단위로 사용되는 나노 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로,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에 해당하며 원자, 분자 정도의 미세한 크기이다. 나노기술의 특징은 물리·재료·전자 등의 재료 분야들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기존의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크기와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

나노기술은 종래와는 전혀 다른 원리의 디바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돌파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이며 종래의 기술과는 지배법칙 및 발상이 다른 혁신 기술이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산업화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은 기존 산업 및 기술의 흐름을 바꾸는 주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국가과학재단(NSF)은 2015년에 이르면 나노기술의 세계 시장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현재 나노기술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CNT와 OLED, 태양광 분야의 솔라셀, 이미징 분야의 CMOS 이미지 센서, 조명 분야에서는 LED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침투율이 약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기술의 파급력과 혁신성을 인식하고 나노기술의 주도권 확보와 경제적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전자, 소재, 신기술산업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활용도가 계속 높아져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나노 기술시장 규모가 약 590조 원, 비중으로는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접목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녹색기술 등에 융합해 가며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에스엔유	080000	서울대 창업 벤처1 호로 나노형상 측정장비(PSIS) 제조	1.77
대주전자재료	078600	나노기술을 적용한 고밀도 마이크로셀 폴리우레탄폼 시트 생산업체	1.32
케이피엠테크	042040	농업과학기술원과 ‘은나노 실크제조법’에 관한 공동연구 개발계약	1.32
로엔케이	006490	그래핀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흑연 생산기술 보유	1.26
상보	027580	한국전기연구원의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CNT 투명전극 필름 제품 양산 준비	1.23
네패스	033640	서울대 나노시스템연구소와 차세대 나노기술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나노스퀘어를 설립, 나노기술사업 본격화	1.22
웰크론	065950	초극세사 직물 제조업체로 나노필터 양산시설 준공 삼성물산과 은나노 향균제품 공동개발 추진	1.12
탑엔지니어링	065130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탄소나노튜브 대량분리 신기술 개발	1.12
제이엠아이	033050	강한 빛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고 눈부심 방지 효과가 있는 나노패턴 이용 기술을 휴대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	1.10
휴먼텍코리아	066060	나노 클린룸 등 나노기술 연구시설 설계, 시공업체	1.09
대진공업	065500	자동차용 엔진부품 및 트랜스미션부품 생산업체로 세계 최초로 탄소나노튜브를 적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	1.03
대유신소재	000300	알루미늄 휠,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 부품업체로 탄소나노튜브복합체 자동차휠 개발	0.98
바이오니아	064550	유전자진단분야 및 나노소재 분야 기술력 보유	0.87
토펅	108230	다기능 나노섬유를 양산할 수 있는 상용 장비 개발	0.83
한국콜마	024720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업체로 나노 복합캡슐 등 3건에 대한 특허 취득	0.80
에프티이앤이	065160	나노섬유업체 에프티테크가 우회상장	0.71
엑사이엔씨	054940	CNT 사업부 탄소나노튜브를 전기저항성, 열전도성 등의 특성을 이용, 발열 및 방열분야에 적용	0.64
리노공업	058470	나노기술의 필수 부품인 탐침(Probe Pin)을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수준으로 제조	0.56
나노캠텍	091970	핸드폰 및 LCD용 전도성 고분자 응용제품 생산업체	0.54
나노트로닉스	010670	TDC 등 계측기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0.53
넥스톤	065500	자회사인 넥스콘이 CN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산화 기술과 응용제품 생산의 안정화 기술 확보	0.50

남북경협/개성공단/대북송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2월 북핵관련 6자회담의 극적 타결과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어 개성공단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등 남북한 실질협력이 진전되었다.

그러나 현정부 출범 이후 핵실험, 서해안 미사일 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으로 남북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대북사업 전반이 위기에 봉착하였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한편 북한은 2011년 1월 남한에 대한 대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정부도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수위를 낮추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포기 등 우리 정부가 제시한 선결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물론 우리 정부와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남광토건	001260	개성공단 내 철골 납품. 남북합작 건설사 설립 추진 중	1.50
재영솔루텍	049630	개성공단 입주한 금형·가전부품제조업체. 소켓류 생산	1.30
로만손	026040	개성공단에 입주한 시계 제조업체	0.73
신원	009270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제조업체	0.68
좋은사람들	033340	개성공단에 입주한 내수용 내의 제조업체	0.56

<남북경협>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현대엘리베이터	017800	승강기 부문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 실질적인 현대그룹의 지주회사, 계열회사로 현대상선 등을 보유	1.28
현대상선	011200	금강산 관광등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아산 지분 58% 보유	1.20
동부하이텍	000990	1999년부터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005년까지 연간 3만톤에서 6만톤의 복합비료 지원(점유율 22.1%)	0.87
에머슨퍼시픽	025980	골프레저 업체로 금강산 아난티 골프 & 온천 리조트 운용	0.80
삼부토건	001470	국내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건설업체. 남북철도 및 도로 관련 업체	0.79
녹십자	006280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우 백신 등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0.49

<대북송전>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이화전기	024810	UPS(무정전 전원장치) 및 몰드변압기, 정류기(통신용 정류기 포함), SCADA, ETUS 신제품과 다양한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중전기기 전문회사	1.92
광명전기	017040	전력 수배전반 업체 중 국내 최초로 ISO9001 품질인증 획득 2004년 6월 피앤씨테크(주)를 전격 인수해 디지털 계전기류와 전력보호, 자동화설비로 사업영역 확대	1.82
세명전기	017510	송전, 배전 및 변전선로용 금구류 제조 및 판매업체. 최근 철도건설공사항 수주 등으로 전철선로용 금구류 판매 증가	1.51
보성파워텍	006910	조립식 강관전주, 중전기기류, 송배전자재류, 지중선자재류 등 총 250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전력기기 전문업체	1.50
선도전기	007610	중전기기 전문업체로 발전, 송변전, 배전설비등 제반 산업용 플랜트의 전력설비에 공급되는 각종 가스절연개폐기, 차단기, 보호계전기반, 제어시스템 등 제작, 판매	1.35
제룡산업	033100	변압기 제조업체로 주력제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 아몰퍼스 변압기	1.34
비츠로테크	042370	전기차단기 및 개폐기 생산업체로 차세대 저압기기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저압 종합 메이커로 도약할 계획	1.17
비츠로시스	054220	산업설비내 전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제조업체로 비츠로로드 설립을 통해 지하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진출	0.92
일진전기	103590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	0.47
LS산전	010120	전기, 전자, 계측, 정보 및 자동화기기류와 동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 업체	0.45

디지털 셋톱박스(Digital STB)

디지털 셋톱박스란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전달되는 압축된 영상, 음성, 데이터 등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TV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장치이다. 디지털 방송의 전달 매체에 따라 디지털 위성 셋톱박스 (Satellite Set-top Box), 디지털 케이블 셋톱박스 (Cable Set-top Box), 디지털 지상파 셋톱박스 (Terrestrial Set-top Box), 그리고 IPTV 셋톱박스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Set-top Box)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셋톱박스 시장은 Nokia, Philips, Pace, Thomson, Sagem, Panasonic, Sony 등의 High-end Brand와 대부분의 한국 업체가 Positioning 되어 있는 Middle-end Brand, 그리고 중국, 대만 업체의 Low-end Brand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산업의 성장성은 디지털 방송의 성장과 비례한다. 현재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진행중인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이 주요 시장이고, 일본과 한국 및 인도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6월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2012년 말에는 OECD 33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디지털 전환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CATV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위성 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방송의 디지털화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 말 아날로그 방송의 전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의 전반적인 셋톱박스 시장을 보면 선진 위성 시장 및 케이블 시장은 꾸준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유럽, 미국, 일본지역에서 HD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반면 IPTV시장은 높은 기대치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한국에서도 시장환경의 미성숙으로 시장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 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방송 장비의 보급은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디지털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셀런	013240	IPTV용 STB 전문업체로 미주, 유럽지역으로의 하이브리드 STB 출하 시작. 국내 최초로 구글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	1.18
현대디지털	035480	디지털셋톱박스 제조 전문기업으로 루마니아, 인도, 홍콩, 대만 등 해외 사업자 영업에 대한 구매선 다양화. 기존 거래선의 유지, 관리 및 현지 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	1.48
홈캐스트	064240	국내 2위의 디지털 STB생산업체. 2010년 미국 케이블 업체와의 시범사업에 이은 본사업 개시	1.12
토피드	057880	위성, 케이블 및 지상파 방송수신용 디지털 STB 전문업체 HD, PVR 셋톱박스 등 고부가제품의 매출 확대	0.92
기륭전자	004790	디지털 셋톱박스, 디지털위성 라디오, 네비게이션, 지상파 DMB, HD Radio 등을 제작 및 판매	0.78
아리온	058220	디지털 방송수신기 및 녹화기 생산 전문업체로 최근 유럽 및 중동에 이어 아시아, 북남미 및 대양주로 비즈니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0.78
휴맥스	115160	디지털 STB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선두권 기업 인적분할(셋톱박스 사업부와 투자 사업부 분리)로 셋톱박스 사업부 경쟁력 강화	0.53
가온미디어	078890	디지털셋톱박스 전문제조기업으로 Closed Market의 시장 지배력 강화. 선진시장 진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NDS CAS를 보유하고 있어 중대형 방송 및 통신사업자와의 사업 연계에 유리	0.50

바이오시밀러/바이오메터

바이오시밀러란 유전자 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단백질이나 호르몬 등을 의미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품이다.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해 효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큰 의약품이다. 화학 합성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 약품의 화학식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고 화학반응에 이변이 없어 오리지널 약품의 공정과 똑같이 생산된다. 반면 살아있는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아무리 염기서열이 동일한 약품을 개발하려 해도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은 복제약을 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단지 유사한(similar)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합성의약품 복제약을 개발할 때에는 임상시험이 생략되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비임상·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15년까지 약 51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가 예상되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각국의 의료비 절감 정책 시행은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촉진 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약품 전문조사기관인 IMS Health 등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사용으로 향후 10년간 약 710억달러의 대규모 보건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관련 허가 규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제조사의 반대가 심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가격 경쟁력이란 측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이오메터가 바이오시밀러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 1품목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화학 제네릭의 약 50배 정도인 1억~1억5천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은 화학 제네릭과 달리 5개~6개 정도의 소수 업체에 의한 과점 체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오메터(Bio-Better, Super Bio-Similar)는 바이오신약보다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며, 이미 존재하는 약품을 개선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대비 확고한 경쟁력으로 시장침투력이 월등하며, 오리지널의 113%에서 많게는 362%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이수애피스	086890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용 항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2009년 삼성전자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국제 과제를 제출하여 선정됨	1.91
바이넥스	053030	바이오신약 전문개발 제약사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임상 중	1.54
팜스웰바이오	043090	신종플루 치료제의 원료(인산오셀타미바르) 생산능력 보유 자회사인 팜스젠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업무영역 확장	1.40
제넥신	095700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항체융합단백질치료제와 유전자 치료백신 개발에 주력	1.38
마크로젠	038290	창해에탄올과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에탄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발효균주 개발 업체로 2009년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국제 과제를 제출하여 선정됨	1.36
슈넬생명과학	003060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	1.34
한화케미칼	009830	2010년 8월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임상1상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분야에 투자	0.92
한올바이오파마	009420	2009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국제 과제를 제출하여 선정	0.91
셀트리온	068270	항체의약품의 글로벌 3위 CMO인 바이오 기업 가천의대 길병원과 바이오시밀러 등 신약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계약 체결.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허셉틴’, ‘레미케이드’ 등 보유	0.82
LG생명과학	068870	유전공학 위주의 전문의약품 업체.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연구 진행. 2009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국제 과제를 제출하여 선정	0.75
셀트리온제약	068760	2009년 (주)셀트리온의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화학약품 판매에서 바이오시밀러 공급업체로 업무 영역 확장	0.75
명문제약	017180	EPO(적혈구생성촉진인자), G-CSF(호중구증가인자, 항암보조제) 등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	0.54
녹십자	006280	바이오메터 유방암치료제 ‘MGAH22’의 한국 내 개발 및 독점 판매를 위한 판권계약을 미국 마크로제닉스사와 체결	0.53
동아제약	000640	터키에서 최초로 발매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항암보조치료제 ‘류코스팀’을 수출 바이오메터 사업도 추진	0.42

비료/농약(애그플레이션)

2010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곡물 가격 상승이 2011년에도 지속되는 조짐을 보여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커피, 옥수수,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69.5%, 50.3%, 42.4%의 급등세로 마감했고, 옥수수, 원당, 대두 등 주요 곡물은 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각각 36%, 33%, 17%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1년 새해부터 원당, 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실생활에 파고들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게는 0.54%p까지 추가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상승의 유발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번째로 엘니뇨, 라니냐 등 곡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와, 두번째로는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는 투기적 수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이유인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폭증을 들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약 68억명으로 추정되는 세계 인구가 2050년이면 9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식량 공급도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70% 가량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 곡물 가격 폭등 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업 전망 2007~2016’에서 애그플레이션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9년 22.4억에서 2010년 22.3억으로 소폭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1.8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수요량은 지난해 22.4억톤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고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6.7%로 주식인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가 늘지 않을 경우 2050년 예상되는 기아 인구는 약 3.7억명에 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급증에 따라 향후 바이오 연료 생산이 곡물가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석유가 무기화되었듯이, 앞으로는 식량을 무기로 한 곡물 전쟁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조비	001550	경농 계열의 비료 제조 전문업체. 복합 및 유기질 비료 생산 국내 최초로 흙 없이 재배하는 양액재배용 비료를 개발했으며 2010년 비료가격 상승으로 외형과 수익성 개선	1.05
효성오앤비	097870	국내 유기질 비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국내 최초 혼합유기질 비료 개발 농협계통 유기질 비료 납품 부문 15년 연속 매출 1위	1.04
휴바이론	064090	천적 및 친환경제재 사업을 영위하는 (주)바이코시스를 자회사로 편입	1.02
파루	043200	생활환경 전문기업으로 환경조절기기 및 병해충 방제기 제조 친환경 제품인 제초기 및 해충 포집기, 무인 방제기 등 친환경 농기계 시장 평균 점유율 약 45%	1.02
대동공업	000490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종합 농기계업체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생산	1.01
남해화학	025860	농협 계열의 국내 1위의 화학비료 제조 및 판매업체 농협 인수량의 약 43% 공급	1.01
KG케미칼	001390	농업용 비료 및 비료 원료 생산업체. 복합, 유기질, 친환경 비료 등을 생산	1.01
동양물산	002900	벽산그룹 계열의 국내 농기계 시장점유율 2위 업체	1.00
농우바이오	054050	국내 1위의 종자업체로 종자 및 상토(床土)사업 영위 향후 고기능성 채소작물 개발 등 생명공학 관련 신규사업 진출 계획	1.00
씨티씨바이오	060590	동물의약품 및 동물용 사료첨가제 생산업체 단미보조사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럽 등의 수출 물량 확대 전망	1.00
경농	002100	업계 2위의 벼농사 및 과수용 농약 제조업체. 수도, 원예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및 친환경 농업 비료 생산	0.99
삼성정밀화학	004000	삼성계열의 정밀화학제조업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요소사업 영위	0.99
오상자이엘	053980	과일 포장재인 팬캡 및 천적을 이용한 방제사업, 부패방지 필름 등 친환경 바이오 농업 영위	0.99
휴켄스	069260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와 농약 원료인 톨루이딘 등 생산	0.99
SK케미칼	006120	SK계열의 생명과학, 바이오디젤 전문업체로 비료 생산 및 판매사업 영위	0.98
성보화학	003080	농약제조 전문업체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생산	0.97
동방아그로	007590	업계 3위의 농약전문제조업체로 비료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유액제, 수화제를 비롯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능성 영양제 등 생산	0.97

사물지능통신(M2M)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은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이 자유롭게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기기들끼리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통신기술로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활용해 의미 있는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현재 처한 환경 또는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지능통신이 기술, 제품, 서비스, 법제도, 표준화 그리고 산업정책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2020년경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자연재해나 인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물지능통신에서는 통신의 주체가 사람에서 사물로 바뀌면서 ‘사물에 내장되거나 부착된 정보통신서비스’가 24시간 365일 운전자/관리자/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융합단말기를 통해서 작동하게 되며, 특히, 정보통신 객체 간에 연결된 감지장치가 안전성을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교환한다.

사물이 감지장치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면, 홍수를 비롯한 폭풍, 대설, 가뭄, 지진, 해일, 적조,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화재, 붕괴,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폭발, 조난, 자동차사고 같은 인적재난도 미리 감지하고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영화 ‘마이내리티 리포트’ 처럼 범죄, 및 사건, 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경에는 이러한 유비쿼터스 생활윤리 기술의 발달로 제2, 제3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승례문 방화사건(2008년) 또는 최진실 자살사건(2008년) 등을 미연에 차단 대응 또는 예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M2M 2.0 서비스의 종류로는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한 스마트워크, 스마트폰과 생활기기, 서비스 서버가 연동돼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환경 서비스, 가정 내 가전과 정보기기의 제어와 정보를 파악하는 홈 편리 서비스, 안전하고 친환경 주행을 지원하는 차량 서비스, 사회간접자본과 ICT 기술을 융합한 SoC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있다.

2010년 11월 ‘한-유럽 M2M 기술협력 국제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박준호 박사는 ‘기존에는 휴대전화나 일부 기기에만 통신모듈이 장착됐지만 점차 통신모듈을 장착한 기기가 보편화·확산화되는 추세이므로 삼성전자도 태블릿PC, 카메라 등과 같은 미디어 기기를 중심으로 통신모듈을 장착, 향후 모든 가전기기에 통신모듈을 장착

할 계획'이라는 삼성전자의 M2M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하여 사물지능통신시장 개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였다.

사물지능통신망과 단말기/서비스/콘텐츠를 망라하여 전체 시장에 대한 양키그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국내 M2M 시장규모는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련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KT와 SKT는 국내 사물통신 시장이 산업 전반에 걸쳐 2009년 약 6억달러(약 6000만 회선)의 잠재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2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국내 사물지능통신 관련 시장이 26조원의 거대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사물지능통신 시장은 2008년 160억달러에서 2014년 570억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씨모텍	081090	휴대용 인터넷 접속장치인 무선데이터 카드모뎀 제조업체. SK텔레콤 및 KT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한 무선 신용카드 단말 기와 무인 방법 보안, LBS 단말기 등에 내장형 모듈 공급. 2009년 M2M 전담팀을 만들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 중	1.62
인스프리트	073130	모바일 디바이스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국제 규격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단말, 플랫폼,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Full Line-up, Full Portfolio를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솔루션 전문 기업	1.24
제너시스시스템즈	073930	패킷 기반의 통신 통합을 구현하는 차세대통신망(NGN) 기술 력 기반의 인터넷전화 (VoIP) 기간망 솔루션사업 영위. 우리나라에서 070 인터넷전화를 보급하는 8개 기간 통신사업 자 중 7개 사업자의 기간망 구축에 동사의 솔루션이 사용됨. CCTV-스마트폰 간에 양방향 음성통화영상공유현장통제 등 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바일영상 감시솔루션으로, 사물지능통신(M2M)기반의 첫 서비스 모델인 아이가디언 (I Guardian) 2011년 상반기 출시 예정. 이를 통해 CCTV 카메라에 IP를 연결해 스마트폰을 통해 CCTV를 원격제어하는 것은 물론 다자간 회의통화 및 영상 공유를 할 수 있음	0.97
알파칩스	117670	시스템반도체 개발전문업체로 45nm 모바일 멀티미디어 복합칩 개발에 성공	0.17

수자원

유엔 세계물위원회에 따르면 인간이 소모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양 중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물 전문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는 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6.5%씩 성장해 2007년 3,620억달러에서 2025년 8,65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5년에 전세계 물 산업의 시장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세계 인구의 20%(약 13억명)는 세계 각국의 수자원 관리정책의 실패 등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적인 물기근에 시달릴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구 증가, 수질 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등으로 물 산업의 성장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1세기 수자원의 중요성을 빚대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 포춘(Fortune)紙는 20세기가 ‘블랙 골드(Black Gold: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 골드(Blue Gold: 물)’의 시대로 물 산업이 석유 산업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UN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산업의 투자는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있는 분야도 있지만, IT, BT와 접목한 스마트 상수관망, 정수처리 지능형 플랜트 등 첨단 기술은 선진국의 55~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물산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원천기술 개발을 포함, 3조 4,609억원을 투자하여 8개의 세계적인 물기업과 일자리 3만 7,000여개를 만드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수자원 테마는 수질개선, 배관노후 개선, 해수담수화, 환경 플랜트 등 수자원의 질적, 양적 부족현상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2008년 15억달러로 세계시장의 0.3% 정도, 내수시장은 101억달러로 세계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수처리 사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으로의 활로 개척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시노펙스	025320	상하수, 해수담수화 등에 부품, 설계, 용역 서비스 제공 나노복합분리막 필터 등 자체 개발. 두산중공업과 해수담수화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신성장동력 추구	1.66
영진인프라	053330	환경 관련 수처리 장비 전문 설비 제조업체로 정수 및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	1.35
AJS	013340	상하수도용 배관시장 국내 점유율 1위 업체 내진형 홈 조인트(국내 유일) 및 관이음쇠 등을 생산	1.33
GS건설	006360	환경플랜트사업의 선두군 기업.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 폐수 처리 등의 분야에서 시공 경험 보유	1.33
동양철관	008970	상하수도용 강관, 배관용 강관 제조 및 판매업체 국내 주요 상수도사업용 수도관 공급	1.24
자연과환경	043910	자연형 하천복원 및 파이프 제조 전문업체 자연 생태적 하수처리공법(KN-News)을 개발	1.2
코오롱건설	003070	폐수, 하수 및 정수 처리 사업 영위. 환경신기술 지정으로 하수처리 분야 기술에 경쟁력 보유	1.09
태영건설	009410	시공능력 22위의 종합건설업체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사업 영위	1.07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IT관련 폐수 처리시설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 보유 중동 폐수처리 시설 수주. 폐수 재이용, 초순수, 고효율 폐수처리 등 종합 물 관리 체제 구축. 국내 최대 규모인 용인시 14개 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민자사업 운영	1.03
젠트로	083660	수처리/환경 관련 제품 제조업체. 정수 및 하수처리 공정의 핵심 요소공정에 관한 설계 및 운영, 개보수 등과 관련된 기술 보유	0.98
한텍	076080	폐수처리용 산업설비 생산업체. 신규 사업으로 무방류 시스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설비 생산 추진 중	0.91
두산중공업	034020	해수 담수화 설비분야(MSF, RO&수처리, MED) 세계 최대 공급업체. 해수담수화플랜트 및 용수/하폐수처리 설비 사업 영위	0.86
한국주철관	000970	상하수도용 주철관 국내 1위 생산업체. 상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과 강관 및 소재 관련 주물제품 생산	0.65
뉴보텍	060260	배수관, 상수도관 등 합성수지 파이프 전문 제조업체. 하수관의 누수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하수배관재 생산	0.56
웅진코웨이	021240	국내 정수기 시장 MS 약 52%의 1위 업체로 수처리 사업 영위. 세계 최대 규모의 정수기 생산설비 보유	0.53
와토스코리아	079000	국내 최대의 욕실 부품 제조업체로 절수형 밸브, 양변기 등 생산	0.21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전력망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사용자는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최적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분산발전으로 생산자가 야간 잉여전력 등을 생산하면 이를 전력저장 장치에 보관한 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등에 재판매를 하는 시스템이다. Zpryme 컨설팅은 전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2009년 693억달러에서 2014년 1,714억달러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World Energy Outlook(2008)'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 규모는 5~6조달러로 획기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2030년까지 27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9년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스마트그리드 기술 세계 선도국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스마트그리드가 전력과 IT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IT 강국인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사업이 전력, 정보통신,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으며 파급 효과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그리드가 미래 먹거리로 장미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는 전력판매 독점, 시장가격과 분리된 경직된 요금구조, 전력시장과 탄소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스마트그리드가 상당히 제한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그리드 산업 및 기술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경쟁적인 시장 창출이 필수 요건으로 주목되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보성파워텍	006910	전력산업용 철구조물 제작 전문업체. 아파트, 상가 등의 원격검침시스템 및 전자식 전력량계 생산	1.80
윔니시스템	057540	디지털 전력량계 및 설비미터 제조업. 한국전력과 52억원 규모의 전력량계 공급계약 체결. 삼성, KT 등과 스마트그리드 사업 협력으로 본격적인 매출 기대	1.73
피에스텍	002230	전력계량기 매출 비중 60%. 스마트미터(전자식 전력량계) 자체 설계 및 생산라인 보유	1.58
누리텔레콤	040160	원격검침 및 무선통신 솔루션 전문업체. 국내 최초로 원격검침시스템(AMI) 상용화에 성공. 한국전력이 발주한 국내 공공시설 원격검침시장 100% 수주	1.43
비츠로시스	054220	원방감시 제어시스템 전문업체. 폐쇄형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국내외 전력계통에 공급	1.40
와이즈파워	040670	2차전지 및 PDP 전원공급장치 제조기업.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참여 사업자로 선정	1.24
포스코 ICT	022100	포스코 계열 IT 서비스업체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에 참여하여 2013년까지 실증단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표준을 선도할 계획	1.14
뉴그리드	099440	광대역 통신망(BcN)장비 전문업체. KT 스마트그리드 컨소시엄 참여로 스마트그리드 네트워킹 통신장비를 공급할 예정	1.00
삼화콘덴서	001820	종합콘덴서 제조업체.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망 공동 연구 관련 고출력 탄소나노 슈퍼콘덴서 등 개발	0.99
일진전기	103590	전선, 변압기 생산업체. 한국철도공사와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스마트 계량기 100대, 전기차용 충전기 4대의 시범 설치 운영 계획	0.86
일진홀딩스	015860	일진그룹 계열 지주회사로 일진전기 지분 54% 보유	0.84
LS산전	010120	전력시스템 및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제주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Smart Place(스마트 홈, 빌딩), Smart Transport(전기차 충전소), Smart Renewable(신재생 에너지 출력 안정) 등 3개 분야에 모두 참여	0.65
세방전지	004490	로케트전지로 유명한 국내 납축전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에 참여하기로 함	0.63
아트라스BX	023890	자동차용 축전지 제조업체로 지식경제부 주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참여	0.62
바이오스마트	038460	전자카드 및 카드발급기 제조업체로 윔니시스템 지분 11.6% 보유	0.58
한국전력	015760	스마트그리드의 주관 사업자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IT 융합기술 첫 상용화에 성공	0.43

스마트폰/휴대폰부품

2011년 전세계 휴대폰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15.8억대로 예상되며, 이 중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대비 32% 가량 성장한 3.8억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3%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위상 변화는 전통적인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와 LG전자의 부진을 틈타 스마트폰 강자인 애플과 RIM이 휴대폰 시장 4,5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빠른 성장은 모바일 인터넷 등 관련 시장 조성 및 게임, 정보,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 휴대폰의 교체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은 일반 폰보다 모바일 인터넷, 각종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용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폰 대비 50~60% 높은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체 입장에서조차 보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휴대폰 시장의 돌파구로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수익성 개선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마케팅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는 2011년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저가형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머징 시장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구매력 상승을 무기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타 이머징 마켓에서는 하이엔드 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이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 확대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C-type(Capacitive,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전식 터치패널을 양산하는 관련 부품업체의 수혜가 예상되며, 하이엔드 제품인 Glass 타입 터치패널과 함께 보급형 Film 타입 터치패널의 채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터치패널을 채용한 휴대폰은 4.6억대로 전체 휴대폰의 29%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기존 TFT-LCD 대비 색재현율, 응답속도, 시야각 등에서 앞선 AMOLED 채용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AM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0.4억대에서 올해 0.8억대로 75%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알에프텍	061040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로 삼성전자 갤럭시S에 이어 갤럭시탭에도 충전기 안테나 등을 납품	1.68
컴투스	078340	모바일 게임 서비스 전문업체. 2010년 ‘홈배틀3D’, ‘미니게임천국’, ‘슈퍼액션히어로’ 등 스마트폰 전용 게임 30여종 이상 출시. 2011년 스마트폰용 게임 31여종 출시 예정	1.38
이랜텍	054210	핸드셋, 카메라 등의 배터리 팩 생산업체로 삼성전자 배터리 팩이 주력제품. 삼성전자와 스마트폰용 배터리팩 공동 개발 진행	1.37
엘엠에스	073110	프리즘시트, 광픽업 부품 등 제조 전문업체로 소형 프리즘시트 M/S 60%.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중대형 프리즘시트 시장으로 애플리케이션 확대 전망	1.35
파트론	091700	카메라모듈, 휴대폰용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모바일 부품 전문업체. 카메라모듈, 안테나 등 기존제품 외에 OTP, 센서 등 신규 제품군의 매출 확대 기대. 갤럭시S, 갤럭시탭 등에 납품	1.22
KH바텍	060720	슬라이딩힌지, 금속부품 등 휴대폰용 부품 제조업체. 최대 고객사인 노키아가 스마트폰 제품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수혜 예상. 삼성, RIM, 애플 등 거래처 확대를 통한 실적 상승 기대	1.16
인터플렉스	051370	FPCB 전문업체로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FPCB 매출 증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애플, 샤프 등의 거래처 다변화, 생산설비 증대 효과로 지속적인 외형 성장 전망	1.15
옵트론텍	082210	광학부품 전문업체로 휴대폰이나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렌즈나 이미지센서용 필터, 광픽업용 필터 등을 생산	1.14
EMW	079190	안테나 제조 전문업체로 LG형에 주력하였으나 일본 샤프에 스마트폰용 모듈형 안테나를 공급하는 등 거래처 다변화로 매출 다각화 전망	1.12
디지텍시스템	091690	국내 터치패널 1위 업체. ITO 필름 및 강화유리 내재화로 경쟁력 개선 전망. 삼성전자의 중저가급 스마트폰 시장 공략시 필름타입 터치패널 수요 증대의 수혜 전망	1.10
이엘케이	094190	터치패널, 키패드 제조 전문업체로 정전방식 터치센서 내재화. LG, 모토로라향 스마트폰에 주력으로 납품하며 LG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과 모토로라향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1.06
게임빌	063080	모바일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 ‘정통맛고 2011’, ‘터치믹스’, ‘2011 프로야구’, ‘놈4’ 등 다수의 스마트폰용 게임 서비스 제공	0.99
한국트로닉스	054040	EMS전문업체로 스마트폰 관련 터치키패드용 보드 제품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 갤럭시S 회로기판 모듈을 독점 공급중인 것으로 전해짐	0.96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한성엘컴텍	037950	휴대폰 부품 및 LED조명 전문기업. 터치 센서, CCM(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키패드(EL Keypad, LED Keypad) 등 생산	0.94
미성포리테크	094700	휴대폰용 키패드 제조 전문기업으로 아이폰4G용 무선 키패드와 갤럭시S, 옴니아2 등에 사용 가능한 무선 키보드 등 스마트폰 주변제품 출시	0.92
아모텍	052710	휴대용 전자기기의 정전기, 과전압 방지용 칩바리스터(Chip Varistor) 부문 글로벌 2위 업체. 애플,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에 칩바리스터 납품	0.91
토비스	051360	윈도우 일체형 터치 패널 제조업체. LG에 의존해온 매출처 다변화 시도 중. 최근 정전용량 터치패널 생산설비 증설로 11인치형 태블릿PC까지 터치패널 생산능력 증대	0.86
알에프세미	096610	마이크로폰용반도체(ECM) 칩 전문업체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ECM 칩을 제작하여 갤럭시S, 갤럭시탭 등에 납품	0.85
유아이엘	049520	휴대폰용 키패드 전문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에릭슨 등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	0.85
태양기전	072520	휴대폰용 윈도 렌즈 제조업체 Icon Sheet 생산을 통한 Touch-Screen폰 사업 진출	0.74
LG디스플레이	034220	TFT-LCD 제조업체. 애플의 ‘아이폰4G’에 문자 가독성 등을 높인 고해상도 LCD 디스플레이인 ‘레티나(Retina) 디스플레이’를 공급	0.72
삼성SDI	006400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지분 50% 보유. 스마트폰을 비롯한 프리미엄 휴대폰 내 AMOLED 패널 채용 증대로 수혜 전망	0.65
피앤티엘	054340	삼성전자의 휴대폰용 케이스 공급업체로 고객사의 전략 모델 라인업이 스마트폰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듈 형태의 납품 비중이 증가할 전망	0.62
인탑스	049070	금형기술, 플라스틱 사출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에 이동전화 단말기용 케이스 및 내장형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 휴대폰 부품 부문에서 삼성전자내 점유율 지속 상승과 갤럭시탭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며 수혜 지속 전망	0.58
우전애티한단	052270	한단정보통신과 (주)우전의 합병으로 휴대폰 케이스 및 부품 등을 공급. RIM사의 휴대폰케이스 및 기구부품 주요 공급업체로 2009년 RIM사 전체의 25% 가량을 공급	0.52
크루셜텍	114120	휴대폰 입력 부품 전문업체. 모바일 인풋 솔루션인 옵티컬 트랙패드(Optical Track Pad)를 세계 최초로 개발, 동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	0.43

원자력 발전

세계 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31개국에서 약 440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300여기의 추가건설이 필요한 상태여서 약 1천조원 규모의 원자력 건설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은 고유가와 탄소배출 규제 등과 맞물려 풍력, 태양광발전 등과 더불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CO2 배출량이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 중 원자력 발전이 가장 낮고 대체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하며 각국의 에너지 자립 향상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0년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출력 향상(총 5600MW) 126건을 승인했다. 출력 향상 외에 노후 발전소 수명을 20년간 연장해 주는 등 원전에 대한 일반인의 우호적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원전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 경기 회복과 재투자법 2009에 따른 신형 원자로 건설 시 필요한 총 83억달러 규모 재정보증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 원전 비율은 프랑스 75%, 독일 27%에는 못 미치는 20% 수준이지만 앞으로 10~20년 안에 원자로 100여기가 교체주기에 들어갈 상황이어서 신규시장 전망은 어느 곳보다 밝다. 풍부한 석탄 매장 등으로 11기의 원전만 보유한 중국도 향후 20년간 6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12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 향후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높이는 대신 석탄, 석유 등 고탄소 배출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점차 축소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010년 31.4%에서 2015년 37.2%, 2020년 44.0%에 이어 2024년 48.5%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지속적인 원전건설을 통한 실질적인 건설 인프라, 인력 및 기자재 생산능력과 최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한전 컨소시엄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자력 플랜트 수주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의 총력전에 밀려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체 기술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모건코리아	019990	전동 액추에이터 전문제조업체(국내시장 M/S 60%). 신고리 3, 4호기에 원자력용 전동 액추에이터 납품. 원전 매출 비중 5%	2.08
보성파워텍	006910	원자력발전소용 철골 및 전기공급 제어장치 전문 제조업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 자격요건인 KEPIC의 1등급 인증 획득 신고리 3, 4호기에 철골부분 230억원 수주 납품. 원전 비중 30%	2.05
우리기술	032820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전문기업. 원전 분산제어시스템(DCS)인 OPERA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신울진1,2호기에 적용	1.79
한전기술	052690	한전의 자회사로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독점기업	1.60
비에이치아이	083650	보일러, 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전문업체. 신고리 3,4호기용 발전보조설비 공급. 원전 매출 비중 20%	1.51
한전KPS	051600	한전이 출자한 발전설비정비업체로 독점적 원전운영능력을 보유. 국내 발전정비시장의 80% 점유. 국내 20기 및 미국 등 해외원전 정비 업무 수행	1.15
티에스엠텍	066350	유화 및 발전용 티타늄부품 제작업체. 캐나다 원전 국영기업인 AECL에 발전용 기자재 공급업체로 정식 등록. 신고리 3,4호기 복수기 수주. 복수기, 급수기열기, 열교환기 등 발전보조기기류 성장 기대	1.15
한양이엔지	045100	반도체/LCD 등 특수산업설비 제조업체. 원자력 발전 설비부문 중 폐수처리 설비, Storage Tank 등 진출. 원전 매출 비중 4% 수준	0.95
신텍	099660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전문업체. 2009년 국내 및 미국의 원자력 품질인증 획득. 원자력 보조 보일러 등 납품 추진	0.88
마이스코	088700	조선, 화학, 풍력, 원자력발전 금속단조품 생산. 국내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자유단조업체 중 최초로 美 원자력 제조인증 ASME QSC 획득	0.88
케이아이씨	007460	가열로, 단열공사 전문업체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10기 중 8기에 원자력 보온제 제작 및 공급	0.86
엔에스브이	095300	대형산업용 특수밸브 제조 전문기업. 원자력 관련 유틸리티 밸브 제조, 중국 원자력발전 부품 수주한 일본의 요네키 등에 납품. 미국 원자력 품질인증 준비 중	0.74
하이록코리아	013030	초정밀 피팅 및 유압용 밸브류 전문업체. 한전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용 초정밀 피팅제품의 승인을 획득, 울진, 영광, 신월성, 신고리원전 등에 제품 공급	0.72
두산중공업	034020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의 발전주기 생산 토목 및 설치부문 참여. 원전 프로젝트 수주시 최대 수혜주	0.65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일진에너지	094820	화공기기 제조, 발전경상정비 및 플랜트 전문기업 발전경상정비 부문 국내 3위업체로 월성 및 신고리 원자력발전의 삼중수소저장장치, 방사성폐기물 저장용기 등 수주 고리원전 1~4호기 및 신고리원전 1,2기의 경상정비 수주	0.56
S&TC	100840	공랭식 열교환기 및 폐열 회수장치 등을 생산하는 플랜트 전문기업. 2009년 국내 및 미국의 원자력 품질인증 획득 신울진 원전 1,2호기 복수기 경쟁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	0.53
한국전력	015760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능력, 낮은 건설 단가 등을 비탕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UAE원전 플랜트 수주 성공	0.45
금화피에스시	036190	발전경상정비 전문업체.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설치. 신월성 원전 1,2호기 주설비 및 보조기기 공사 수주	0.28
우진	105840	원전용 계측기,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유량계 및 유량시스템, 설비진단시스템 제조. 원전용 계측기 매출 비중 27.4%	0.18

스마트 TV

그동안 삼성, LG, 소니 등 TV 메이커들은 누가 더 선명한 화질을 구사하고 얇은 패넌을 만들 수 있는지의 기술적 이슈로만 각축을 벌여왔다. 하지만 TV와 전혀 상관없던 애플과 구글이 TV진입을 선언함에 따라 TV 시장의 외형적 장벽은 무너지고 플랫폼사업자, 셋탑박스, 콘텐츠 제공자 등 이중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기술보다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트렌드를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스마트 TV라고 불리는 구글 TV, 애플 TV, 삼성 스마트 TV가 출시되었다. 2010년 말 기준 애플 TV와 구글 TV 판매량은 각각 100만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일단 초반 시장 형성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스마트 TV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각자 경쟁자로 여겨진다고 보다 다른 서비스 자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TV 성공 여부 또는 표준화를 논하거나 스마트 TV에 한정된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긴 시각에서 TV 진화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다. 지상파에서 케이블, 위성, IP TV로 TV에서 구현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술적 뒷받침도 진행되고 있다. TV에서 구현되는 콘텐츠의 증가와 소비자의 능동적인 탐색은 필연적으로 TV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

TV진화에 따른 최선호 수혜주는 셋탑박스 제조업체로, 차선호 수혜주는 네트워크 장비업체다. 그동안 TV 교체주기와 기술주기의 간극을 메웠던 셋탑박스가 TV 진화 시대에 미들웨어로서 더욱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셋탑박스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셋탑박스를 개발하여 스마트 TV까지 포괄 가능한 기술 구축에 힘쓰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급에 스마트 TV까지 가세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와이파이, 4G(LTE) 등 네트워크 인프라 및 장비 투자를 서두르게 하는 데 힘을 보탬 전망이다. 디바이스, 플랫폼이 달라져도 TV에 있어 지상파 실시간 방송 수요는 항상 존재해왔다는 선례에서 실시간 방송을 기본으로 기타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수혜도 기대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다산네트웍스	039560	유선네트워크 장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일본향 무선 망 백홀 솔루션 보급으로 무선 네트워크에서 레퍼런스 기대	1.41
이수페타시스	007660	네트워크/메모리모듈/모바일 기기용 PCB 제조업체로 해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2010년 매출액 3,039억원, 영업이익 217억원으로 설립 이래 사상 최고 실적 예상	1.38
SBS콘텐츠허브	046140	디지털 콘텐츠 유료 제공, 유통 및 판매, 마케팅 대행과 방송 관련 수익산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미디어 제작 및 유통사. 자이언트, 대물,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아테나, 시크릿가든 등 SBS 방송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	1.24
휴맥스	115160	세계 3위 수준의 셋탑박스 전문업체로 2009년 휴맥스 홀딩스에서 인적분할. 글로벌 셋탑박스 시장 구조조정 및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수혜 향유. IP 하이브리드 셋탑박스 및 미국 케이블 시장 진입으로 한 단계 레벨업 기대	0.94
가온미디어	078890	기저효과 및 중대형 방송사업자 수주 확대로 2010년 실적 턴어라운드. 스마트박스 '웹튜브'로 본격적으로 스마트 TV 시장 공략 중	0.90
LG전자	066570	자체 OS인 넷캐스트 2.0을 탑재하여 VOD, 앱 등 서비스 제공. 제품 출시와 함께 오락,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LG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개장	0.58
삼성전자	005930	삼성 스마트 TV 전략의 핵심은 '앱'을 포함한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확보에 있음. 작년 말 기준 100만개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 기록	0.55

신약개발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5조원(2009년 GDP의 약 5.5%)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국내 제약시장은 각종 리스크 요인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 쌍별죄,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매출 성장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2011년은 국내 제약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악재로 작용했던 규제 리스크들이 2010년 시행안이 확정되거나 법 적용이 실시된 상태라는 점은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2011년은 제품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력이 뛰어난 대형 제약사의 수혜가 전망된다. 쌍별죄 도입, CGMP(미국우수약품관리기준) 등이 의무화되면 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어, 대형 제약사의 시장 지배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의 새로운 환경 변화는 신약개발 업체에도 도약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배제와 약가인하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영업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길은 우수한 자체 신약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제약산업 역사상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에 성공한 신약은 17개에 불과하나 2011년 허가가 기대되는 신약은 6개에 육박한다. 최근 국내외 당국의 허가 장벽이 높아지며 국산 신약 개발 성공 사례가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2011년은 제약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산 신약 승인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승인을 앞둔 신약들의 경우 조사분석 결과 시장 가치가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1984년 7월 국내 쌍별죄 제도와 유사한 리베이트금지법이 발효되고 시장성 높은 글로벌 신약이 최초로 발매되면서 제약업종지수가 1년 동안 시장대비 최대 30%p나 아웃퍼폼했다는 사례가 있다. 각종 규제 리스크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및 실적 개선과 기저효과에 기반한 2011년 제약업종 회복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크리스탈	083790	임상 1상 진행 중인 분자 표적 항암제 ‘CG200745’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임상 개발비의 50%를 지원받기로 결정	1.98
삼진제약	005500	항 에이즈 치료제 ‘SJ-3366’ 개발 진행. 도네페질을 주성분으로 한 치매치료제 ‘뉴인토정’ 발매	1.50
바이로메드	084990	서울대 학내 1호 벤처기업. 천연물 신약개발사 헬릭서와 합병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천연물신약 ‘알렉스’ 시판 중. 골관절염치료제 ‘PG201’ 임상 3상 진행 중	1.18
동화약품	000020	세계 첫 방사성 의약품인 밀라칸(간암치료제) 개발. 골다공증 치료제인 ‘DW-1350’과 신퀴놀론계 항균제 ‘DW-224a’의 기술 수출 및 글로벌 임상 진행 중	1.13
LG생명과학	068870	국내 최초로 美 FDA 승인을 취득한 항균제 ‘팩티브’를 비롯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히루안플러스’, 불임치료제 ‘폴리트롭’, 성장호르몬 ‘디클라제’ 등 개발	1.10
부광약품	003000	자체개발 만성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중국 임상 진행중. 한국, 일본 및 EU에 대한 개발 및 판매권을 보유한 표적항암제인 ‘YN968D1’, 대상포진치료제 등 신약개발 진행 중	1.02
녹십자	006280	항암제 ‘그린스타틴(MG1102)’, 유방암치료제 ‘허셉틴(MGAH22)’, 간암 치료제 ‘JX594’ 등 임상 단계 신약만 11품목 보유. 최근 동사의 R&D 담당 부사장이 매년 하나씩 신약을 내놓겠다고 언급	1.01
일성신약	003120	항생제, 비만치료제 주력 업체. 디지털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치매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지원 과제로 선정	0.96
SK케미칼	006120	국내 최초 천연물신약 조인스 개발에 이어 천식질환 치료제 ‘SOTB07’, 위염치료제 ‘SK-MS10’ 임상 2상 진행중. 올해 11월 천연물 의약품 원료공장 가동으로 의약시장 진출 가속화될 전망	0.92
동아제약	000640	2011년 천연물 위장관 운동 촉진제 ‘DA-9701’ 식약청 허가 및 발매,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 FDA 허가, 슈퍼 박테리아 타겟 항생제 ‘DA-7218 FDA’ 등의 허가 추진 중	0.82
유한양행	000100	위산분비 억제 신약 ‘레바넥스’ 이후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이 다소 부진. 현재 위질환 치료제의 임상 1상 진행중	0.80
대웅제약	069620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DWP05195’, B형 간염치료제 ‘DWP10019’, ‘아데노항암제’, ‘뼈형성촉진제: BMP-2’비롯해 치매치료제, 관절염치료제 등 10여개의 연구과제 수행중	0.74
삼양제넥스	003940	바이오 제약 제조시설 구축 및 미래성장산업으로 신약개발에 매진, R&D 집중투자	0.45
한미약품	008930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 아스트라제네카 항궤양제 넥시움 개량신약인 ‘에소메졸’ 등으로 글로벌 진출 추진. 과거 제네릭 회사에서 신약개발 회사로 변모과정 진행 중	0.3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정부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에 힘입어 성장했던 태양광 산업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가에서 녹색산업으로서 육성·의지를 나타내면서 전세계적으로 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국의 지원책에 힘입어 태양광 산업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43%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12.2GW~ 16.6GW의 규모로 예상되고 있고 각국 정부의 태양광 지원정책이 지속된다면 2012년 19GW까지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 조사 업체인 솔라버즈(solarbuzz)에 따르면 중국 업체의 지난해 3분기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은 6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Suntexh, Ja Solar, Yingli Solar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공격적인 생산량 증대가 이루어져 공급능력이 수요 대비 74% 이상 초과하였으나 2010년 급격한 태양광 수요 증가와 더불어 수급은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점차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태양광 가격 하락은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비화되는 측면도 있다.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으로 이르면 2015년에 Grid Parity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 상위 10개사는 이미 1GW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솔라엔에너지에 따르면 모듈만을 생산하는 것보다 폴리실리콘에서 모듈까지 전 단계를 자체 생산할 경우 35%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태양광 시장 밸류체인별 과점화 현상을 진전시켰는데 밸류체인별 10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 80%, 잉곳/웨이퍼 66%, 셀/모듈 45%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한다. 국내에는 밸류체인별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있어도 전 단계 수직계열화를 이룬 회사는 거의 없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대신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린홈 100만호’ 계획과 RPS 제도에 태양광 생산을 별도로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투자 유인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략할 대상은 내수가 아닌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므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밸류체인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폴리실리콘	OCI	010060	전체 매출 중 폴리실리콘 비중 49.1%. 폴리실리콘 생산용량 16,500톤. 올해 18,000톤이 추가되어 2011년 10월까지 총 생산능력은 35,000톤으로 증가할 것	0.94
	KCC	002380	대죽산업단지에 연간 6,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하였으며 생산량 중 절반은 현대 중공업과 합작한 케이에이엠에서 생산/판매	0.54
잉곳/웨이퍼	오성엘에스티	052420	2010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잉곳/웨이퍼 매출 비중은 31.8%. 생산용량 잉곳 40MW, 웨이퍼는 2010년 5월 추가 증설로 40MW에서 100MW로 확대. 2012년까지 200MW 확보할 예정	1.16
	SKC솔믹스	057500	태양광은 신사업으로서 2011년 시장공급을 목표로 하여 설비 건설중. 2012년까지 200MW 규모로 생산용량 확대할 계획	0.86
	웅진에너지	103130	총 매출 중 잉곳 매출 비중 75%, 웨이퍼 매출 비중 25%. 2009년 생산량은 335MW로 단결정시장에서 점유율은 약 10%	N/A
셀	신성홀딩스	011930	태양전지 관련 매출 비중 전체의 95%. 2010년 현재 총 연간 생산능력 150MW급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100MW 추가 증설 중	1.27
	한화케미칼	009830	태양전지 관련 매출 비중 전체의 2.4% 셀 생산용량 30MW며 2015년까지 1GW 확장 계획. 모듈은 2015년까지 100MW, EVA sheet은 2012년까지 140,000톤 계획	1.00
	한국철강	104700	태양전지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0.1%. 셀 생산용량 20MW. 박막 전지 생산업체(amorphous-Si)	0.47
모듈/시스템	SDN	099220	태양광 모듈/시스템 매출 비중은 85.4%. 2010년 모듈생산능력은 연간 30MW	1.44
	에스에너지	095910	태양광 모듈/시스템 매출 비중은 99.9% 태양전지모듈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200MW이며 2010년 3분기 누적기준 생산실적은 80MW	1.31

신재생에너지(풍력)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 인류가 풍력을 이용한 것은 기원전 페르시아의 수직축 풍차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풍력 발전이 특히 각광받는 이유는 1) KW당 설치비용이 가장 낮고 2) 발전 단가가 원자력과 맞먹을 정도로 저렴하여 경제성이 뛰어나며 3) 한번 설치 후 자동운전되므로 인건비, 관리비 등 유지비용 절감 효과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5 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200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8.1%인데 반해 2005~2008년 간은 연평균 32.9%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글로벌 풍력 설치량은 35,945MW로 전년대비 약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 발전시장의 초기에는 유럽 지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국가 주도하에 풍력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 미국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대 초 EU의 풍력발전설치는 세계 풍력 설치용량의 70~80%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2010년 글로벌 풍력 발전시장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풍력 신규 설치량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함께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각각 10%,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발전의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 방식의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있고, 단지 개발시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을 대안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을 밝혀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설치비용에서 육상풍력 방식보다 초기 부담이 클 수 있으나, 발전용 부지의 확보 문제, 각종 민원(소음, 먼지, 그림자, 저주파 등) 발생문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특성상 바람의 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해 발전 효율이 높고, 대규모 단지 조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9년 전세계 해상풍력 누적설비용량은 1,910MW이나, 2020년에는 40,000 MW로 연평균 28.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제주도에 실험용 2MW급 해상풍력발전기 2기 설치를 준비중이며, 2012년에는 서해안 일대에 해상 풍력단지 조성도 추진중이다.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도 해상풍력발전 개발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초기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시장 선점과 원전에 이은 해외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평산	089480	풍력 발전용 타워플랜지 세계 1위 업체. 풍력발전용 타워플랜지를 비롯 기어림, 디스턴스, 락플레이트, 메인샙트 등을 생산. 풍력단조 매출 비중 40%	1.93
보성파워텍	006910	국내 최초로 수직축 풍력발전기 개발 성공	1.54
현진소재	053660	풍력발전기와 날개를 연결하는 핵심부품인 메인샙트를 비롯 풍력발전 용 베어링, 타워, 타워 플랜지 등을 생산 원자력/풍력 발전 관련 매출이 전체의 약 50%를 점유	1.39
용현BM	089230	풍력발전 자유단조 업체로 풍력발전 베어링, 메인샙트, 타워, 타워 플랜지 등을 생산. 풍력관련 매출 비중은 32% 수준	1.34
글로벌스	034600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사업에 진출	1.29
동국S&C	100130	풍력발전 윈드타워 세계 1위 업체. 전남 신안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 해상 풍력 발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1.24
유니슨	018000	풍력 발전터빈, 풍력 발전타워, 자유단조 사업 영위 강원풍력발전 건설 및 지분 보유. 풍력관련 매출 비중 전체의 60%	1.24
마이스코	088700	풍력 타워용 플랜지, Tube sheet 제조업체 자유단조 사업 부문 세계 최고 경쟁력 보유	1.19
태웅	044490	베어링, 메인샙트, 타워, 타워 플랜지 등 생산 풍력관련 매출 40% 이상	1.16
우림기계	101170	2MW급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국산화 개발과제 대상자로 선정	0.88
현대중공업	009540	전북 군산에 600MW 규모의 국내 최대 풍력공장 완공 풍력발전사업체인 창중풍력발전을 계열사로 추가	0.82
삼영엠텍	054540	기어박스에 소요되는 Planet Carrier 개발	0.79
두산중공업	034020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국산화 프로젝트. 아시아 최대 3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0.63
효성	004800	5MW급 해상 풍력 발전 국책 주관업체로 선정	0.62
삼성중공업	010140	2010년 상용화 목표로 해상용 5MW급 풍력발전터빈 개발	0.59
한국프랜지	010100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공장 설립	0.57
국도화학	007690	풍력 블레이드용 에폭시 합성수지의 본격적인 납품 기대	0.40
스페코	013810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 생산. 멕시코 윈드타워 사업 진행	0.37

엔터테인먼트(게임)

2010년 세계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1,254억 달러로, 국내 게임시장은 약 18.3% 가량 성장한 7조7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계 게임시장의 절반(약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디오게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력시장인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기타 플랫폼들의 성장세도 고르게 나타났다. 세계 게임시장의 주류는 2012년까지 비디오게임이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권 온라인 게임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게임도 2010년 12.3%에서 2012년 14.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게임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과 2011년 온라인 대작 게임의 연이은 출시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함께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시장은 2010년 85억달러 규모로 전체 게임시장의 약 6.8%를 차지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은 2006년 8천만대로 전체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의 8.3%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2년에는 약 6억1천만대로 세계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의 약 39.9%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1.5%에서 2010년 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가입자수로는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게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도 모바일 게임은 게임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2011년은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씨소프트의 대작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2’를 비롯하여, NHN의 ‘테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3’, ‘창찬’ 등 대형 MMORPG 게임의 상용화 일정이 공개되고 해외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1년 게임시장의 성장과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 기대감은 어느해보다 높은 상황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컴투스	078340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서비스업체로 올해 스마트폰용 게임 31종 출시 예정	1.50
손오공	066910	자회사 '소노브이' 을 통해 온라인 게임 개발. 미국 블리자드사와 '스타크래프트2' PC방 유통 파트너 계약 체결	1.38
엑토즈소프트	052790	중국의 게임업체 '산다' 가 최대주주로 있는 온라인 게임개발 업체로 대표게임으로는 '미르의전설2' 등이 있음	1.36
와이디온라인	052770	온라인 게임 업체로 대표작으로는 '프린스톤테일' 등이 있음	1.29
네오위즈	042420	네오위즈 게임즈 지분 21.9% 보유	1.22
드래곤플라이	030350	'스페셜포스', '퀘이크워즈 온라인' 등 다수의 게임 보유	1.22
다날	064260	휴대폰결제 사업과 함께 온라인 게임 '로코' 해외수출	1.19
게임빌	063080	모바일 게임 전문업체로 '2011 프로야구' 등 다수의 게임 보유. 올해 20여종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	1.18
네오위즈게임즈	095660	국내 3대 게임서비스 개발 업체로 대표게임으로 'FIFA 온라인', '크로스파이어' 와 게임포털 사이트 '피망' 운영	1.11
게임하이	041140	'데카론', '서든어택' 등을 보유. 2010년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인수되며 시너지 효과 기대	1.10
KTH	036030	게임포털사이트 올스타를 통해 '십이지천', '적벽', '카로스온라인' 등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중	1.07
엠게임	058630	온라인 게임업체로 '열혈강호', '풍림화산' 등의 무협게임과 바둑, 장기, 신고스톱 등 다수의 게임 개발	0.99
CJ인터넷	037150	국내 최대 게임 포털인 '넷마블' 운영, 대표게임으로는 '서든어택', '마구마구', '프리우스 온라인' 등이 있음	0.99
한빛소프트	047080	국내 선두권의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퍼블리싱. '헬게이트', '삼국지천' 등 다수의 게임 보유	0.99
소프트맥스	052190	콘솔, 온라인, PC, 모바일 게임등 다양한 게임 사업 영위. 대표작으로는 '마그나카르타', '창세기전' 등 보유	0.88
JCE	067000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대표작으로는 '프리스트아일 2' 보유	0.86
이스트소프트	047560	하반기 전세계 50여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MMORPG '카발온라인 2' 출시 예정. '카발온라인' 아이폰용 앱 출시	0.80
웹젠	069080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로 대표작으로 '뮤', 'SUN' 등이 있음.	0.78
대원미디어	048910	온라인 게임, 콘솔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 추진	0.74
위메이드엔터	112040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 등을 보유	0.70
YNK코리아	023770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업체로 '로한', '썬온라인' 등 보유	0.68
엔씨소프트	036570	'아이온', '리니지' 등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선두업체로 2011년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 등 신규大作 게임 계획중	0.66
NHN	035420	인터넷 포털선두 기업으로 온라인 게임 포털 '한게임' 운영. '테라',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3', '창천' 등 대형 MMORPG 게임의 상용화 예정	0.30

우주항공

2008년 이소연씨가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탄생하면서 조성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2009년 4월 완공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2009년 8월 우리 기술로 개발한 100kg급 과학기술위성 2호가 소형위성발사체 ‘KSLV-I (Korea Space Launch Vehicle-I)’에 의해 발사되었을 때 절정에 달하였으나, 1차 발사에 이어 2010년 6월 2차 발사마저 실패하면서 실망감도 그 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 2차 발사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와 함께 2011년내 3차 발사를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9개월 간격으로 최대 3회 발사, 2회 성공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1년 6~7월경 아리랑 5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 위성은 흐린 날이나 밤에도 영상레이더 촬영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천후 지구관측위성으로 러시아 야스니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리랑 5호는 발사 후 5년간 지구 위 550km 상공에서 하루 약 15번 지구를 돌며 세계 각 지역을 촬영 하게 된다.

중국은 2010년 10월 달 탐사위성 ‘창어 (嫦娥) 2호’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3년 창어 3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창어2호는 달 연착륙 임무는 물론 달 표면과 내부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중국 항공우주 당국은 2011년 상반기에 우주정거장 실험을 하게 될 톈궁(天宮) 1호를, 하반기에는 선저우(神舟) 8호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무인 우주선 선저우 8호와 톈궁 1호는 중국 우주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도킹을 시도한다. 중국 당국은 이어 유인우주선 선저우 9, 10호를 차례로 발사해 역시 톈궁 1호와 도킹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시도를 통해 오는 2016년께 자체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명의 여성을 포함한 우주비행사 7명을 새로 선발, 기존의 우주인들과 함께 훈련에 들어가는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우주항공 테마주는 창어2호 발사 시 급등한 적이 있어 중국의 우주항공 분야 진행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비츠로테크	042370	전력용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반 등 전력제어장치 제조업체 진공상태 초정밀접합, 특수공정 설계 등을 이용한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등의 소형위성발사체 시제품 제작에 참여. 로켓 추진 용 메탄엔진을 개발한 관계사인 씨앤스페이스는 비엔알로 피인수된 후 우회상장추진하다 비엔알의 상장 폐지로 무산	1.59
한양디지텍	078350	DRAM 메모리 모듈 전문 제조기업. 지분 25.29%를 보유하고 있는 한양네비콤은 나로호의 위성항법시스템을 공급하였으며 러시아 국영기업 RIRT 와 우주항공 파트너십 체결	1.39
한양이엔지	045100	반도체 배관설비 및 반도체 모듈 등 특수산업설비 제조업체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방과학연구원 등과 액체연료로켓개발 프로젝트 참여. 나로호 발사와 관련,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배관공사와 고압파트 부문 담당. 나로호 발사체에 탑재된 추적 장치의 GPS 개발 작업에 참여한 한양네비콤 지분 21.76%는 2010사업년도에 매각	1.37
퍼스텍	010820	초정밀 방산분야 전문업체. 항우연 발주 KSLV-1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T-50 및 우주로켓분야의 주요부품 국산화 추진 KHP프로젝트 관련, 와이어 하네스 Ass'y 개발 및 납품	1.12
AP시스템	054620	반도체장비업체인 코닉시스템과 아태위성산업이 합병하여 반도체, FPD 장비 제조 및 위성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아리랑 3호 위성에 들어가는 인공위성 부분체인 영상데이터 고속처리 장치(Image Data Unit)와 지상테스트장비(EGSE)를 개발하여 공급. 2010년 3월에 2013년 발사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3A호 위성본체개발 최종 주관기업으로 선정	1.06
씨트렉아이	099320	국내 유일의 위성체 개발능력 보유업체. 위성을 구성하는 위성본체, 지상체 등 핵심기술을 보유. 지구관측용 소형인공 위성시스템 및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영상수신처리 및 위성관제 용 지상체 제조 공급. 나로호 발사와 관련, 대기권 진입까지 비행모습을 찍는 카메라 납품. 2010년 2월 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 우선협상 결렬	0.94
이수페타시스	007660	우주항공기용 PCB를 개발하여 항공우주 PCB 부문의 ISO9001 인증규격인 AS9100(Aerospace Basic Quality Standard) 획득 후 민간항공기 부품 공급. 2010년 5월 NADCAP(국제 우주항공 산업 특별 공정 관리 프로그램) 획득	0.73
한국카본	017960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 전문기업. 우주 항공 소재에 쓰이는 '카본 프리프레그' 탄소섬유 소재 생산. 항공우주연구소와 특정연구개발 과제로서 위성체 추진체계의 개발 완료	0.41
휴니드	005870	전술통신장비 및 시스템 제조업체. 동사 지분 16.21% 보유한 美 보잉사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EX-ICS, ILS)분야 공급계약 체결. 방위사업청과 휴대용 비행정보 시현체계 탐색 및 개발 공급 계약 체결	0.39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은 의료기술·정보통신기술·생명과학기술·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형 성장산업으로 미래의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전략사업이다. 신기술혁신 및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바이오칩, 생체이식 등 BT, IT, NT가 융합된 신상품이 출현하면서 의료기기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는 의료기기 시장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생산이 2009년말 2조8000억원에서 2015년 5조원(2020년 10조원), 수출은 12억달러에서 25억달러(55억달러),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국내시장점유율은 35%에서 45%(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지역이 979억달러(46.6%)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다음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이 582억달러(27.7%)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393억달러(18.7%)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3%로 세계 의료기기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7%(148억달러)에 불과해 시장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전세계 질병의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망이다. 또한, 소득증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삶의 질 향상이 미래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의료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생활형 의료기기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동분석시약 관리 강화, 신속한 U-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용온열기, 저주파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등 위해성이 낮고 공산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일상생활형 의료기기를 일반 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업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듯 의료기기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개선되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의료기기시장의 성장 속도는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지앤알	043630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업 전문기업 대림솔라와 합병	2.11
위노바	039790	의료기기 제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 기업	1.41
나노엔텍	039860	유전자전달 등 나노바이오 Tool 연구개발 전문업체	1.32
뷰웍스	100120	아날로그 필름 X-ray에서 진화하여 X-ray를 바로 전자신호로 변환해주는 Detector 생산 업체	1.26
인포피아	036220	혈당측정기 등 혈액진단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1.25
솔고바이오	043100	첨단의료공학 기기전문업체로 헬스케어 제품 확장	1.24
세운메디칼	100700	체액배출기, 의료용흡인기, 비뇨기과용 기계기구, 의약품 주입기용, 외과용품 및 시술기구 등 제조업체	1.06
휴비츠	065510	굴절시력검사기, 근접시력측정기 등 글로벌 안광학 의료기기 제조업체	1.05
원익	032940	의료용 내시경, 레이저장비 등 전자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1.01
오스템임플란트	048260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1.00
바이오스페이스	041830	체성분 분석기를 주력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0.92
메타바이오메드	059210	의료용 소재개발 전문기업. 생체적합성 골수복재 개발 및 상품화에 성공하여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섬	0.91
큐렉소	060280	의료용 수술로봇 및 초음파진단기 등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0.89
바텍	043150	치과용 디지털 X-Ray(파노라마), CT 등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0.66
디오	039840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주차 및 철구조물 제조업체. 3D 구강 디지털 스캐너 및 심장혈관 내과용 의료기기인 스텐트 사업 진출. 독일 덴츠플라이로 피인수	0.66
오스코텍	039200	뼈이식제, 뼈건강 보조식품, 파골세포 활성화 측정키트 등뼈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	0.65
제이브이엠	054950	주력제품인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에 이어 약품검수시스템과 약국 자동화 시스템 등으로 제품 다각화	0.64
루트로닉	085370	레이저치료기 등 의료용 에스테틱 전문기업	0.51
신흥	004080	치과용진료대, 치과용합금, 치과용X선촬영기 등 치과의료장비 제조, 판매업체	0.21

자원개발

2011년 안으로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804년에 10억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1927년 20억명에 이를 때까지는 무려 123년이 걸렸던 것이 1960년 30억명까지는 33년, 1974년 40억명까지는 14년, 1987년 50억명까지는 13년으로 단축되더니,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999년 60억명을 돌파하는 데에는 12년이 걸렸다. 인구 급증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자원부족, 질병, 기아,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으로 우리 피부에 절실히 와닿은지 오래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는 본질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머지 않은 미래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이머징 국가들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적인 석유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개발산업은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및 에너지 안보문제 부각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자원의외교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 관련 예산 증대 속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규 자원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지분 참여, SOC 사업전개 등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다각화를 위해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시중자금의 자원개발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테라리소스	053320	엔터테인먼트사업에서 유전개발업으로 전환 계열사 예당에너지의 원유생산업체 러시아 빈카社 지분 70% 전량 인수. 2010년말 빈카사 생산정에서 원유 생산 개시	1.99
예당	049000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미국의 주피터 홀딩스 그룹과 원유 등 천연자원 공동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실제사업은 지분 24% 보유한 테라리소스가 진행할 예정	1.74
유아이에너지	050050	이라크 바지안 광구와 멕시코만 해상가스전 5개 광구 투자	1.57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글로벌스	034600	몽골 수하비타르 보하트 지역의 금광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랜드몽골리아의 지분 50% 소유	1.55
케이아이씨	007460	필리핀 금광개발 사업 진출. 캐다나 오일샌드 플랜트 공급	1.32
한진피앤씨	061460	잠비아 KZ코퍼레이션에 10억 출자, 지분 70% 취득. 구리, 우라늄 등 광산자원 개발 추진	1.21
코코	039530	지분 15% 보유한 카메룬 소재 C&K마이닝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승인 획득. 금, 사파이어 등도 개발 추진	1.06
엠케이전자	033160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구광업을 계열사로 편입, 구리 및 금 등의 광물 채굴	1.05
엔알디	065170	대한석탄공사 등과 몽골 석탄광산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한몽에너지개발 설립, 2010년 12월말 몽골 광산회사인 훗고르샤나가사 지분 51% 인수 계약 체결	1.05
한성엘컴텍	037950	몽골 AGM마이닝에 17억원 출자. 몽골 자원개발 사업 난항	1.03
SK이노베이션	096770	16개국 31개 광구 및 4개 LNG 프로젝트에 참여, 이중 생산광구는 7개국 9개 광구	0.97
LG상사	001120	오만, 카타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유전 및 가스전 사업 진행. 92년 베트남 가스전 생산, 09년 오만유전 석유 본격생산. 필리핀 및 볼리비아 동광산, 호주 우라늄 광산 투자	0.91
동양시멘트	038500	골든오일과 동양시멘트 합병. 콜롬비아 유전 개발 착수 캐나다, 페루 등 유전개발 추진	0.90
대한뉴팜	054670	지분 12.6% 보유한 갈라즈광구 (추정매장량 2080만배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시범상업생산 승인 취득	0.86
동원	003580	자회사 엔엠씨를 통해 국내 유일의 몰리브덴 광산 개발 생산 바다모래 채취 가공사업 영위	0.84
GS	078930	인도네시아 3개 광구 탐사권 확보. 자회사 GS칼텍스 통해 캄보디아, 태국, 캄차카반도 유전 개발 사업 진행	0.77
현대상사	011760	오만, 카타르 LNG 프로젝트와 베트남 11-2 광구 (2012년 실적 반영)개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투자	0.71
대우인터내셔널	047050	미얀마 A-3 광구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	0.64
삼환기업	000360	과거 북예멘 등에서의 원유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액화 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예멘 마리브 가스전 사업 진행 중	0.52
대성산업	005620	카타르 라스라판 LNG 광구, 리비아 NC 174 육상광구, 베트남 해상 11-2 광구 등 성공한 3개 광구를 통해 20년동안 매년 200억원(총 4,000억원) 수준의 현금매출 확보	0.45
삼성물산	000830	알제리 이사우안 광구 원유 생산, 오만 및 카타르 LNG 프로젝트 지분 참여, 중국 마황산 석유 생산, 멕시코만 생산광구 매입 등 자원개발사업 본격 추진	0.45
한국가스공사	036460	미얀마, 캐나다, 동티모르,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4개의 천연가스 탐사 프로젝트, 7개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3개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진행 중	0.43

전자책(e-book)

전자책 시장을 크게 구분하면 전자책 단말기를 제조하는 ‘e-reader’시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e-book’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읽을 수 있는 디바이스 보급 확대와 읽을만한 콘텐츠 다량 확보라는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 출시된 e-reader기는 삼성전자의 SNE시리즈, 인터파크의 ‘비스킷’, 아이리버 ‘스토리’, 북큐브테크의 ‘북큐브’ 등이 있었으나 전자책 전용의 흑백 단말기는 소비자에게 크게 소구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출시한지 1년만에 SNE 시리즈 단종을 결정하였고 인터파크는 전자책 단말기 사업을 철수하였다. 전자책 단말기 대신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전자책에서 컬러와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멀티 디바이스 등장으로 종이책이 멀티미디어 북으로 진화하면서 종이책 시장과 동반 성장 가능한 전자책 시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콘텐츠 확보는 전자책 시장 확대의 관건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저작권자와 출판업체 등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성장이 더뎠다. 전자책이라는 전자매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복제와 2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출판업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출판콘텐츠를 설립(KPC)한 것은 콘텐츠 공급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최근 3백여만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인 ‘구글 ebookstore’는 콘텐츠 제공업자(저자), 유통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의 모범적인 윈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구글의 전자책은 안드로이드 폰/태블릿 PC, 아이폰/패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누크, 소니의 전자책 단말기 등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가독가능한 개방성을 기본으로 한다. 아직 구글의 전자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단말기 보급 확대 및 콘텐츠 질과 양 확충에 있어서 향후 시장 확대의 주요 캐털리스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아이리버	060570	CES 2011에 세계 최초 고해상도 전자책 단말기인 ‘스토리 HD’ 공개. 중국 신화서점, 영국 최대서점인 워터스톤즈, 스웨덴의 CDON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집중	1.34
인큐브테크	020120	전자책 표준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책 솔루션 개발	1.31
이니시스	035600	전자결제(PG) 대행 서비스 전문업체	1.28
모빌리언스	046440	휴대폰 전화결제, ARS 결제, 폰빌 결제 등 유무선 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1.24
다날	064260	유/무선 전자결제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전문업체	1.10
예스24	053280	아이폰용 전자책 앱(Yes24 eBook)을 출시. 2011년 초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용 전자책 앱도 선보일 계획	1.02
인터파크	035080	인터파크 도서에서 종이책 구입시 동일한 eBook을 제공하는 ‘eBook같이읽기’ 서비스 제공	0.87
대원미디어	048910	3,000억원 규모의 만화시장에서 학산문화사 등 자회사가 약 70% 점유율을 점하고 있어 전자만화책이 확대될 경우 수혜	0.71
예림당	036000	대표 상품인 Why? 시리즈에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미한 e-book 출시. 기존 종이책 구매 고객도 멀티미디어 북을 활용할 수 있는 에센셜 서비스(3,000원 추가)도 제공	0.66
삼성출판사	068290	대표적인 유아동 출판 전문업체	0.46

전쟁/방위산업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무기·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기구뿐만 아니라 피복·군량 등 비전투용 일반 군수물자까지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방산육성기금이 조성되고 방산업체들의 전문화 및 계열화가 추진되면서 첨단 무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특히 방산 수출은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신경제 성장동력으로 선정하며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화로 선언하고 각종 방산 진흥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볼 때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자주국방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의 무기 체계가 대부분 1980년 이전에 보급된 것으로 교체시기가 도래하면서 향후 더 많은 R&D 투자와 국방예산 배정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및 무기 현대화와 방위력 개선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국방 예산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2010년 10월에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을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개편해, 연간 2억 5,000만달러에 불과한 수출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0억달러로 확대, 일자리 5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국방부는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미래 선진정에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 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병력 단위의 군사력 증강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와 시스템으로 국방 체계를 바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군의 개혁 방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 599조 3천억원을 마련해 2020년까지 병력을 현재 68만명에서 51.7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육해공군에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무기체계 첨단화에 175조원(지상 38.3%, 해상 21.1%, 공중 20.0%, 공통 20.6%)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 2020 예산 집행에 의한 실질적인 수혜 업체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는 모습이다. 동 테마는 경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 시 일시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빅텍	065450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함정용 및 항공기용 전자 전시스템, 통신용/유도무기용/전자전시스템용의 전원공급 장치 생산	2.04
퍼스텍	010820	화포, 궤도차량, 유도무기, 헬기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 T-50에 계기판 패널류, 조정석 패널 조립체 등을 납품	1.73
스페코	013810	플랜트 제조업체로 1995년부터 함안정기를 해군에 독점 공급, 최근 이지스급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함안정 조타기 및 차기 고속정 함안정기 수주	1.64
이엠코리아	095190	공작기계 전문업체, 탄약운반장치/차보송탄장치/랜딩기어/해상함부품 등 육상, 항공, 해상용 방산시스템 부품 수주	1.17
휴니드	005870	전술통신용 무전기, 특수장비를 취급하는 전술통신사업과 전술통신체계, 무기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SI를 영위하는 전술시스템 사업으로 구분(매출의 83%)	1.04
한진중공업	097230	고속경비정, 초계함, 호위함 등 생산	1.01
HRS	036640	실리콘 고무 전문 제조업체로서 방사능 차단제 일부 생산	1.01
한일단조	024740	방위산업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항공 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	0.93
루멘스	038060	군통신장비 및 LED 사업 영위, 군전술통신망 이동가입자 장치/이동 무선 주파수모듈 MRFM/고정 무선주파수 모듈 BRFM/주파수변환장치인 RATE 등의 무선통신장비와 VHF 대역 주파수도약무전기모듈 4종 납품	0.91
대우조선해양	042660	구축함, 잠수함, 보조함 등 제조 수출	0.89
현대중공업	009540	일반 군함 및 잠수함 등 특수선박 건조하는 방위산업 영위	0.87
풍산	103140	방산사업부에서 각종 군용 탄약 생산	0.84
한화	000880	탄약 및 항공기부품의 방산부문 비중이 전체매출의 50%	0.64
삼영이엔씨	065570	단파통신체계 등 방산장비 납품, 2009년 69억원 매출 반영, 2010년 이후 신규함선 및 교체장비 수요 발생 기대	0.63
삼성테크윈	012450	엔진사업부에서 FX(차기전투기) 및 T/TA-50(고등훈련기) 등 군수용 엔진을 담당하며, 특수사업부에서는 자주포/탄약 운반차/상륙돌격장갑차 등을 생산	0.59
S&T중공업	003570	K10 탄약 운반차, K21 차기 장갑차용 자동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방산사업부 매출비중이 40% 상회	0.54
대한항공	003490	아태지역 미군의 유일한 정비창으로서 전투기 및 헬기에 대한 성능개량 및 창정비 작업 진행	0.49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산업은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선박 내 · 외부의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으로, 선종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선박 건조원가의 55~65%를 차지할 정도로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필수 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기능별로는 크게 기관부품, 선체 및 의장부품, 전기전자부품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부품은 추진 및 동력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기관실에 설치되고, 선체 및 의장부품은 계류, 하역, 주거와 관련하여 화물창, 갑판, 선실에 설치되며, 전기전자부품은 선박의 항해 및 통신장비 등으로 사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하락, 선박금융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세계 조선시황은 급격한 침체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해운시황이 예상 외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조선가 상승 및 선박 발주량 증가 등 조선업황이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조선 부문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 조선사들의 2010년 하반기 매출은 과거 호황국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취소 및 인도 연기 요구가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생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선박 발주가 예상보다 조기에 늘어나 인도 연기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게 된 점 또한 매출 증대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형조선소의 경우 해양 플랜트 등 조선 이외 부분의 상대적인 선전이 2011년에도 차별화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1년 조선 업황 전망이 밝다는 점은 실적 측면에 긍정적이다. 컨테이너선을 필두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드릴쉽과 FPSO등의 발주 증대가 이어져 미래 성장성을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로드맵 발표로 조선/중공업 업체가 1차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조선사들의 경우 풍력발전설비 설치선에 대한 신조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 상당수가 풍력발전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은 매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평산	089480	타워플랜지 등 풍력발전부품 및 조선/플랜트 설비부품 제조	2.26
현진소재	053660	중저속 크랭크샤프트 등 선박엔진 구성품 및 풍력발전용 단조품 생산. 복합형 첨단 단조공정 및 고품질 대형 단조품의 핵심기술 보유	1.66
용현BM	089230	선박엔진부품 및 풍력발전부품 외 대형 금속단조제품 생산	1.62
STX엔진	077970	선박용 디젤엔진 및 방위산업용 특수고속엔진 등의 제조업체 세계시장 M/S 6%	1.40
STX메탈	071970	크랭크샤프트와 실린더 라이너 등 선박용 디젤엔진 부품 및 모듈, 소재 등 생산	1.39
마이스코	088700	조선, 발전설비, 석유화학 및 산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금속 자유단조 제조 및 판매	1.38
태웅	044490	풍력, 플랜트, 조선업 등의 핵심 단조부품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유형 단조 제조업체	1.34
성광벤드	014620	합금강 및 스테인레스강 관이음쇠 제조업체. 태광과 더불어 국내시장 양분	1.33
조광NI	044060	원자로 설비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기자재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 전체 매출의 98% 차지	1.18
에스앤더블류	103230	선박엔진부품(엔진볼트, 밸브시트링, 캠 및 캠축), 산업부품(산업볼트), 단조품 등의 사업 영역	1.10
오리엔탈정공	014940	선박상부구조물인 Deck House 및 Engine Room Casing, 선박용 크레인 등 생산	1.05
하이록코리아	013030	국내 1위의 중소형 관이음쇠, 밸브, 기타 배관자재 전문업체.	1.02
삼영엠텍	054540	선박 및 발전용 내연기관의 MBS(Main Bearing Support) 등 내연기관구조재, 풍력부품 등 구조용 금속제품 업체	0.99
태광	023160	산업용 배관자재 및 반도체용 피팅 밸류 등 관이음쇠 전문업체	0.98
화인텍	033500	LNG선 초저온보냉재(국내 M/S 50%), PU시스템,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	0.94
한국카본	017960	LNG운반선용 단열패널 등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 전문기업	0.92
대창메탈	096350	선박엔진용 내연기관 구조재(Main Bearing Support), 플랜트, 단조대체재 등 선박용부분품, 발전설비, 산업기계 제조	0.85
동방전기	099410	선박용 배관 및 Module Unit 과 육상 및 해양플랜트 제작	0.84
한라MS	092460	선박용 레벨 측정시스템 및 제어장치, 선박계선 계류 조타장비 생산. 원격자동측정시스템 국내 M/S 60%	0.74
해덕파워웨이	102210	선박방향타, 선박의장품 및 구성부분품 제조업체	0.63
케이프	064820	대형선박엔진 부품인 실린더라이너 제조업체	0.62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비엠티	086670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원자력, 플랜트, 반도체 생산업체에 관이음쇠(피팅), 밸브 등 단조부품 공급	0.58
케이에스피	073010	엔진밸브 등 선박용 엔진부품사업, 형단조사업, 특수용접사업(Hardfacing 및 Friction Welding)등 영위	0.49
삼영이엔씨	065570	해상에서의 조난신호, 항해 및 어로 등에 사용되는 해상 통신장비, 어군탐지기, 자동항법장치 등 제조	0.39
인화정공	101930	Cylinder Cover, Common Base Frame 등 중저속선박엔진부품, 기계설비 및 발전설비부품 제조	0.20
두산엔진	082740	선박용 중저속엔진 제조업체, 세계시장 M/S 22%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지분 참여	0.11

철도/GTX/지하도로

2010년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207억달러 규모의 고속철 발주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철도산업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구시대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생각되었던 철도산업이 백여년만에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실제 철도산업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철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제2의 원전사업이라고 불릴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철도산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철도가 저탄소 녹색수단으로서 부각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도로 수요를 억제하고, 철도 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글로벌 주요국들은 인프라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철도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철도는 인프라 중 그 중요도와 활용성 면에서 고용 유발효과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커서 경기부양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하도로 건설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 깊이 40~60m, 총 길이 149km에 이르는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육상도로망이 포화상태인 서울에 지하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도심 지하에 150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한 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공사인 데다, 지하철 1호선 개통 이래 서울 교통사를 새로 쓸 획기적인 변화이다. 지하도로는 남북 1·2·3축, 동서 1·2·3축 등 총 6개 축이 우물 정(井)자로 엮인 형태로 건설될 예정으로 동부간선도를 지하화하는 남북 3축이 공공재원으로 2017년 먼저 완공될 예정이다. 동서 1·2축과 남북 1·2축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2013년 사업시행자 선정을 거쳐 2014년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양천구 신월동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제물포길 9.7km 구간 지하에 양방향 4차로의 지하도로(총예산 5,231억원 규모의)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은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교통권역의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체 통행량 가운데 장거리 통행(서울~경기~인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및 서울 시계 유출입 도로의 통행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교통인프라의 구축 미흡으로 교통혼잡이 수도권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구상안을 발표했다. GTX 3개 노선은 수도권 방사축 중 경부·경인·경의축과 서울 도심을 지하 40~50m 깊이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평균 깊이 20~30m 지하철 노선 밑에 다시 터널을 뚫어 도심도 깊이에 철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보다 깊은 곳에 만들어 직선 코스의 최단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지상 철도에 비해 토지 보상비 부담이 없으며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 현장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경기도는 2011년 1월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들어가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조9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는 민자 60%와 신도시개발부담금과 역세권 개발이익금 20%, 국비와 지방비 20%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도로>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특수건설	026150	철도, 도로지하 횡단 구조물, 대구경 교량, 전략구 및 통신구 등 지하 기간시설 전문시공업체	1.51
삼호개발	010960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터널공사와 아스콘, 골재 등의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	1.36
울트라건설	004320	토목, 건축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 임반 지대 굴착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 8대 보유	1.36
남광토건	001260	국내 최상위권 터널공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 지하도로 건설 참여 기대	1.16
미주제강	002670	지하굴착 흙막기 공사에서 벽체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강관버팀보를 생산하는 업체	0.88
케이아이씨	007460	건설과 지하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의 환기시스템 관련 전기 집진기 및 탈질장치의 판매	0.69
에프티이앤이	065160	터널환기시스템과 필터 및 전기집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과거 운면산 터널에 납품한 경험을 보유	0.59
동아지질	028100	터널 공사 전문기업으로 최근 4년간 산악터널, 지하철 NATM 공법,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수행	0.45

<대륙철도, GTX>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대아티아이	045390	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5개(서울, 대전, 부산, 순천, 영주) 지역관제실로 분포되어 있는 관제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일괄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도교통관제시스템 수주 및 완공	1.60
세명전기	017510	전철가설 및 전력 송배전 가설용 금구류 제조업체 대륙철도 전철화 및 대심도 철도 추진시 수혜	1.57
대호에이엘	069460	알루미늄 환절판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 현대로템의 1차 하청업체로 철도가량 임가공을 맡고 있음	1.32
리노스	039980	방송 및 통신솔루션(BCS), IT서비스(ITS), 키플링 및 이스트팩 브랜드 가방유통(FnB)사업을 영위. 철도와 지하철에 들어가는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 솔루션도 제공	1.17
지아이블루	032790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 일부(189억원) 수주	1.06
비츠로시스	054220	산업설비내 전력장치를 제어하는 장치 제조업체로 비츠로어드 설립을 통해 지하철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진출	0.96
삼현철강	017480	철강재 임가공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철도레일용 철강제품 납품	0.94
동양강철	001780	다방면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관련 제품 생산 업체로 압축 성형 공법을 이용한 고속 철도 부품 생산 기술 보유	0.86
남광토건	001260	POSCO가 주도하는 브라질 고속 철도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한국철도공사와 차량 검수시설 관련 공사 등의 경험 보유	0.81
특수건설	026150	지하 토목 전문건설업체. 07년 9월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공사 수주	0.71
우원개발	046940	2010년 말 경부고속철도 토공 및 교량공사 관련 공사계약을 삼성물산과 수주	0.62
서한	011370	대구 도시철도, 부산신항배후 철도건설 등의 수주 경험 보유	0.38
동아지질	028100	터널 공사 전문기업으로 최근 4년간 산악터널, 지하철 NATM 공법,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수행. 국내 처음으로 쉴드 TBM 공법 도입, 20여년간 독보적인 위치 구축	0.36
하이록코리아	013030	계장용 피팅 및 밸브 생산 업체로 현대로템이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시 70~80% 가량의 철도차량 모듈을 납품할 것으로 기대	0.36

줄기세포/세포치료제

줄기세포(stem cells)는 성인의 몸 안에서 발견되는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s)와 발달단계에 있어서 전 분화능력을 가진 미분화상태의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로 구분된다. 배아줄기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된 후 세포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세포들의 일부를 분리하여 분화 능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대량 증식이 가능하며 거의 모든 신체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또한 타인과 타종에게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는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된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이식,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켜 조직을 재생시킨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때 이식하는 줄기세포는 환자의 세포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처럼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분화조절이 어려워 암세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대상질환은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암 및 혈액질환(혈액종양, 백혈병, 림프종 등), 뇌질환(뇌경색,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치루,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국내에서는 2011년 1월 현재까지 총 19건(5개社)의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으며, 그 중 5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다.

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2005년 기준 69억달러(약 7조) 규모이며, 연평균 24.6% 성장률로 2012년에는 324억달러(약 37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성체 줄기세포가 55.7%, 배아줄기세포가 15.7%, 제대혈 줄기세포가 28.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을 허용하고 2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EU는 8개국 11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였고, 일본은 작년에 역분화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연구에 109억엔을 지원키로 하는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5개부처(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가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줄기세포연구 R&D 투자를 현행 연간 400억원에서 2015년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산성피앤씨	016100	줄기세포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프로스테믹스가 미국 법인을 설립. 비상장 바이오 업체 FCB-파미셀 지분 22.8% 보유	1.45
엔케이바이오	019260	태반 양막 줄기세포를 이용한 상피치료제, 신경세포치료제 등 연구 개발	1.44
메디포스트	078160	업계 상위의 제대혈 은행업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제대혈 보관, 조혈모세포이식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의 사업 영위	1.42
이노셀	031390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면역세포은행, 항암제진단사업 (EDR assay), 제대혈은행 사업 영위	1.41
차바이오앤	085660	차병원그룹 계열 바이오 전문업체. 배아줄기,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줄기세포 بانک, 항노화 치료제 사업 등 영위	1.40
알앤엘바이오	003190	성체줄기세포 연구개발 기업. 일본 교토에 암과 당뇨병, 류마티스 등의 자가면역질환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세포치료 병원 설립. 줄기세포 배합 화장품 닥터 주꾸르 판매	1.29
세원셀론텍	091090	뼈세포 치료제 ‘오스론’의 제조 승인 임박. 바이오콜라겐 상처치료제 ‘테라폼’의 미 FDA 시판 승인	1.20
조아제약	034940	2002년 조아생명공학연구소에서 체세포 복제돼지를 생산 하였으며, EPO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진행 중	1.07
중외신약	067290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회사 크레이젠 보유	1.05
마크로젠	038290	유전자 정보 분석 및 DNA칩 관련 사업을 영위. 보령제약과 DNA 칩을 이용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사업 진출	1.02
젬백스	082270	성체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사로 보유	0.98
에프씨비투웰브	005690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업체인 FCB파미셀이 우회상장	0.97
에스티큐브	052020	최대주주인 박병수 수임재단 이사장이 황우석 박사와 함께 바이오벤처기업 ‘에이치바이온’을 설립	0.96
바이넥스	053030	면역세포은행(Cell Bank)으로 사업영역 다각화. 폐암 및 대장암 세포치료제 개발	0.91
토자이홀딩스	037700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바셀테크놀로지 와 췌장암 항체치료제 개발업체 렉스바이오를 자회사로 보유	0.66
제이콤	060750	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말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0.58
삼진제약	005500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손상 및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 중	0.53
부광약품	003000	자회사 안트로젠을 통해 생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세포 치료 연구	0.45
제일약품	002620	파킨슨병과 관련된 배아줄기세포 연구 진행	0.19

지능형로봇

지능형 로봇이란 사람처럼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로봇을 말한다. 로봇은 전기, 전자, 기계, 자동화, 전산 등 일반 산업부문의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복합체이다. 특히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 생체공학, 신경회로, 퍼지이론, 음성 화상인식 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모터 제어, 센서사용 등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는 첨단 기술체라고 할 수 있다. 로봇은 크게 산업용과 서비스용으로 분류되며, 서비스용 로봇은 다시 전문용 로봇과 개인용 로봇으로 나뉜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청소·의료·군사용으로 사용되며,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가사·엔터테인먼트·교육용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역할은 노동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통적 로봇'에서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로봇'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IT기술과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분산, 가상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진화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약 94억달러로 이 중 서비스 로봇은 전체 로봇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해 제조용 로봇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률로 2018년 855억달러로 성장, 제조용 로봇 시장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선제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술 경쟁력 제고, 성장기반 확충 등 3개 분야의 10대 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로봇 산업을 자동차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지경부는 선진국과 현재 2.5년 정도 벌어진 로봇 기술 격차를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9년 현재 10%에 불과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8~10개 분야를 선정하여 30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동에는 감시로봇, 유럽과 미국에는 실버로봇, 중국과 동남아에는 가사로봇 등 각국별 수출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전략 수출지역 진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로봇 융·복합 분야의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기술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융합 전략 로봇 개발을 위해 유망 제품을 선정, 육성하는 ‘베스트-8’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형 6대 전략 부품을 선정해 조기 국산화를 지원한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 선진국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산업 경쟁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로봇 분야 성장기반을 넓히기 위해 로봇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대학 내 로봇연구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제별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다사로봇	090710	2006년 로봇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제조업용 로봇(매출비중 97.5%)과 서비스용 로봇 제조 IT, 자동차 등 설비증설로 제조업용 로봇 수요 증가 추세	1.49
우리기술	032820	자회사인 그린로보텍(관로갱생로봇을 통한 상하수관 청소 사업), 케이엠씨로보틱스(교육용 로봇 제조), 메이힐(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통해 로봇사업 영위	1.22
스텝사이언스	066430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바이오의료 사업 진출 지능형 로봇 핵심 모듈제조업체 디유로봇 지분 24.25% 보유	1.20
퍼스텍	010820	초정밀분야 방산산업 및 얼굴인식 전문업체로서, 삼성테크윈, 세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휴전선감시경계로봇개발 시범 운용	1.10
이엠코리아	095190	600kg의 초중량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다관절로봇인 ‘초중량 물 핸들링 지능로봇’을 국책개발과제사업으로 개발완료 자동차가공조립공정, 항공기 및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중량물 이송작업에 적용 가능	0.96
다스텍	043710	배틀 로봇 등 엔터테인먼트 로봇 개발, 지능형로봇 서보모터 특허 출원	0.96
유진로봇	056080	청소 로봇(아이클레보), 지능형 로봇(아이로비큐), 유비쿼터스 서비스 로봇(주피터), 군사용로봇 및 엔터테인먼트 로봇 개발 생산. 가정용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스마트’가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획득	0.87
이디	033110	전자계측기와 전자교육장비 등 산업용 전자제품 제조업체 영화도우미 로봇 양산, 롯데시네마에 공급할 계획 지식경제부 주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실버로봇 개발 주관회사로 선정	0.79
큐렉소	060280	바이오 메디칼 로봇 전문기업으로 세계최초로 개발된 인공관절 수술로봇 로보닥 제조 판매.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의 승인 획득	0.71
에이디칩스	054630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 지능형 통합반도체 SoC(System on Chip)에 특화되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보드 생산	0.69

출산장려정책

높은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출산율은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0년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산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 수는 2008년도 46만 5,900명보다 4.5%가 감소한 44만 4,800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2008년 1.19명에서 1.15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 역시 9.0명으로 2008년 9.4명보다 0.4명이 감소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가 공동으로 발간한 ‘201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4명으로, 186개국 중 184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 부담을 꼽으며 중산층까지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끌어들었다. 이 계획에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산모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2011년 3월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고소득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전국 천여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도 현재 0~1세 영아에게 10만원을 주던 것을 2012년 부터는 만 0~2세 영아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와 주거지원 혜택도 늘어났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는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기로 했다.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 월 50만원의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선해 상한 100만원 이내에서 휴직전 임금의 40% 수준을 주기로 했다.

현재 저출산 관련 법률은 25개나 되고 중앙부처는 80개, 지자체는 약 600개나 되는 정책 과제들을 쏟아냈다. 2011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3,600억원이 늘어난 2조 5,600억원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만큼 향후에도 과감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메디포스트	078160	국내 제대혈 은행 1위 업체	1.80
이노셀	031390	세포 치료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매월 약 10,000명의 제대혈 보관 의뢰	1.59
차바이오앤	085660	2008년 11월 차바이오텍과 흡수합병을 통해 바이오 사업 및 제대혈 은행 사업 영위. 시장점유율 3위	1.54
세원셀론텍	091090	베이비셀 브랜드로 제대혈 사업 진행. 시장점유율 2위	1.48
에이치엘비	028300	전자기기 유통 및 제대혈 은행 사업 영위. 시장점유율 5위	1.47
보령메디앙스	014100	유아용 스킨케어 생활용품, 영유아용 의류 제조업체	1.27
한진피앤씨	061460	여성용 생리대 및 일회용 기저귀의 커버에 사용되는 통기성 필름 생산	1.13
에스지어드밴텍	049470	KT와 공동으로 유치원에 자녀들을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U-CAM 서비스 설치 운용	1.12
에듀박스	035290	유치원 컴퓨터교실 및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 운용	1.08
큐앤에스	052880	유아동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모아베이비의 지분 92.5% 보유	1.08
아기방컴퍼니	013990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 제조업체	0.83
예림당	036000	‘Why?’ 과학시리즈에 이어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으로 구성된 ‘Why?’ 교과서시리즈를 표준 교과 과정에 맞추어 발간	0.60
남양유업	003920	조제분유 시장점유율 1위, 유가공 2위 업체	0.49
대교	019680	눈높이 학습지 사업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0.42
삼성출판사	068290	유아동 전문 도서업체로 초등학교 영어학원 교재 사업 진출	0.41
웅진씽크빅	095720	영유아용 학습지 판매와 교구렌탈 서비스 제공	0.39
매일유업	005990	분유, 시유, 유음료 제조 및 판매업체	0.32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PC, 휴대폰, TV 등 다양한 세트기기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스토리지, S/W, 서버, 네트워크를 유틸리티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은 IT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개인 등 서비스 사용 주체 또한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 사용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IT 환경을 주도할 차세대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인텔, HP, 오라클, IBM, 세일즈포스닷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차세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관이나 기업 자체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의 외부 자산을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등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1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1,095억달러가 될 것이며 오는 2014년에는 3,434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까지 현재 수준 보다 4배 큰 2조 5,000억원 규모로 키워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기업 및 기관들이 더욱 늘어나고 관련 기업들의 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아 각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찾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에 대응함으로써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과 시도가 이뤄지는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엔빅스	054170	암진단 키트 등의 바이오 및 SI 전문 업체로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문에 강점	1.68
클루넷	067130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처리능력을 공유해 가장 빠른 속도로 자료가 전송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서비스인 CCN (Cloud Computing Network)과 여러 컴퓨터의 잉여 저장공간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가상 서버로 만드는 서비스인 CSS(Cloud Storage Service)에 강점	1.61
필링크	064800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업체로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에 참여.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팅센터 내에 설치	1.38
인스프리트	073130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문 업체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멀티미디어 플랫폼과 OS기술 등을 제공	1.36
인프라웨어	041020	폰브라우저와 방송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국내 모바일 보안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쉬프트웍스 인수	1.09
효성ITX	094280	효성그룹의 계열사로 아이폰4와 갤럭시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오피스 사업 영위. 모바일오피스는 장소와 관계없이 전자결제와 이메일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0.96
안철수연구소	053800	국내 대표 통합 보안기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확대시 보안 부문에서 수혜 예상	0.53
다우기술	023590	세일즈포스닷컴의 국내 총판 업체로 클라우드 플랫폼 ‘포스닷컴’과 동사가 독자개발한 영업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고객·영업관리서비스 ‘스마트 프로세스’ 출시	0.48
나우콤	067160	문서, 사진, 동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웹 가상 드라이브에 보관 한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관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컨드라이브 정식 서비스 오픈	0.47
SK C&C	034730	SK그룹의 SI 전문업체로 무선 인터넷 솔루션 개발 능력 보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관해 레드햇과 MOU 체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파일럿센터 개발. 리눅스 운영체제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솔루션 등을 구현	0.45
모바일리더	100030	휴대폰 및 PC의 데이터 전송과 저장에 사용되는 Sync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KTFT 등을 고객사로 확보. 국내시장 90% 점유	NA

태블릿 PC

태블릿PC는 무선랜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의 모바일PC이다. 필체 인식 기능을 갖추어 펜 입력을 통해 문자나 그림을 워드파일이거나 오피스에 입력할 수 있다. 태블릿PC는 노트북PC의 휴대성과 개인정보단말기(PDA)의 편의성을 겸비, 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 감상, 독서,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교육시설에서는 교과서를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웹패드와 기능이 비슷하지만 처리속도가 훨씬 빠르며, 윈도우XP, 맥, 안드로이드 등의 OS를 사용하고 있다. 2001년 MS가 처음으로 태블릿PC를 발표했으나 초기 태블릿PC는 기술 부족으로 필기 인식률이 낮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부족했으며 휴대가 불편해 시장형성에 실패했다.

2010년은 애플 아이패드와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의 태블릿PC가 출시되면서 태블릿PC 도입 및 대중화의 원년이 됐다. 태블릿PC가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무색하게 아이패드는 2010년 세계적으로 1,200만대 이상 판매됐으며 삼성전자 갤럭시탭도 출시한 지 2주 만에 70만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패드로 촉발된 태블릿PC 전쟁은 델 HP, 도시바, LG전자 등 주요 PC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향후 태블릿PC 시장은 기존 PC와 노트북PC 등의 수요를 대체하며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2011년 5,480만대, 2014년 2억 800만대의 태블릿PC가 판매되고 2014년까지 기존 PC의 10%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리스트는 미국 태블릿PC 판매량이 2010년 1,030만대에서 2015년 4,4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트북PC 판매량은 2010년 2,640만대에서 2015년 3,98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에는 태블릿PC 판매량이 노트북PC 판매량을 500만대 가량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태블릿PC는 기존 모바일 기기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지만 다양한 기능의 조합이 가능해 독자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태블릿PC 시장의 확산은 반도체(모바일 D램, 낸드플래시, 모바일 CPU), 디스플레이(LCD, OLED), 2차 전지 등 관련 부품업체는 물론 출판, 영상, 교육, 게임 등 미디어 분야 및 통신사업자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엘엠에스	073110	중소형 프리즘시트 생산업체로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에 들어가는 프리즘시트를 100% 단독 공급	1.62
알에프텍	061040	휴대폰용 부가제품 전문업체. 휴대폰용 충전기와 데이터링크 케이블(DLC), DMB안테나 등을 생산	1.46
멜파스	096640	정전용량방식 터치스크린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터치솔루션 업체. 주매출처는 삼성전자	1.38
파트론	091700	휴대폰(안테나, 수정발진기, 카메라모듈 등) 및 이동통신 시스템(유전체필터, 아이솔레이터 등)에 채용되는 핵심부품 제조, 판매업체로 갤럭시탭에 동사 부품 탑재	1.20
엔스퍼트	098400	국내 최초로 출시한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PC 아이덴티티 탭(IDENTITY tab) 발매	1.15
이엘케이	094190	휴대폰 키패드의 백라이트로 사용되는 EL(전계발광소자)/터치패널 등을 제조. 주요 매출처는 LG전자, 모토로라 등	1.11
에스맥	097780	터치스크린 모듈업체로 갤럭시탭의 터치패널 모듈 조립	1.11
플렉스컴	065270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생산 전문업체. 갤럭시탭에 동사의 키패드부품 탑재	1.10
인터플렉스	051370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연성인쇄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 주요제품이 아이팟과 갤럭시S, 갤럭시탭 등에 탑재	1.09
KH비텍	060720	이동통신용 초정밀 부품제조 전문기업. 갤럭시탭에 탑재되는 EMI실드 공급	1.06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LED용 사파이어 기판과 터치패널 전문 제조업체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에 적용되는 정전용량방식의 7인치 터치패널 주요 납품업체로 선정	1.02
이라이콤	041520	휴대폰용, TFT-LCD용 BLU(Back light Unit)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LCD용 BLU 및 MODULE 제조업체로 갤럭시탭에 들어가는 BLU 공급	1.01
테크노세미켄	036830	반도체 및 LCD 공정용 화학약품 전문기업으로 갤럭시탭 부품 씬 글래스 납품	0.99
켄트로닉스	089010	전자부품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체로 갤럭시탭에 동사의 씬 글래스 탑재	0.99
디지텍시스템	091690	저항막 방식에서 국내 최대 터치패널업체로 삼성전자가향 매출 비중이 높음. 갤럭시탭에 탑재되는 터치패널 공급	0.94
에이스디지텍	036550	LED 부품소재 편광필름 제조업체로 갤럭시탭에 동사의 편광 필름 탑재	0.92
LG디스플레이	034220	TFT-LCD 제조기업으로 애플 등에 패널 공급	0.91
삼성전기	009150	삼성계열의 종합 전자부품 제조기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신규 제품의 출시와 빠른 성장으로 HDI(휴대폰용 기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관련 부품 매출 호조	0.91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하이닉스	000660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애플의 맥북에어 수요 증가로 낸드부문의 매출 증가 예상	0.90
삼성SDI	006400	세계적인 PDP, 2차전지 제조기업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에 폴리머전지 공급	0.75
비에스이	045970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를 생산하는 비에스이의 모회사로 갤럭시 탭에 들어가는 ECM MIC 제조	0.65
삼성전자	005930	글로벌 IT기업으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출시	0.61
LG전자	066570	글로벌 가전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로 허니콤 운영체제를 탑재한 LG전자 태블릿PC 출시 예정	0.59
인탑스	049070	휴대폰 케이스 전문제조업체로 주매출처는 삼성전자. 갤럭시S의 휴대폰 케이스를 독점으로 공급	0.52
실리콘웍스	108320	드라이버IC와 타이밍 콘트롤러(T-CON), 전원관리IC(PMIC) 등을 제조하는 업체. LG디스플레이의 아이패드용 패널에 채용 되는 부품을 단독으로 공급	NA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접촉해 조작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입력장치이다. 터치스크린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복잡한 기능을 간편하게 구현해야 하는 디지털 기기의 트렌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에서는 3G서비스 확대에 따른 풀브라우징 무선인터넷의 등장으로 대화면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키보드 방식보다 조작이 용이하고 화면과 키패드의 통합으로 다양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터치스크린은 크게 저항막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저항막방식은 디스플레이 표면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일정한 전압이 걸린 접촉부분의 상하판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며 정전용량방식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디스플레이 표면에 접촉 시 사용자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중 저항막 방식은 휴대폰, 내비게이션, PMP 등에 쓰이며 정전용량방식은 무인정보단말기, ATM기, 슬롯머신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급확산 등으로 정전용량 방식이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계 터치스크린 시장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3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느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전자기기의 빠른 성장으로 터치스크린 패널의 출하량이 30% 증가했다. 휴대폰 등 중소형 제품 위주로 성장했던 터치스크린 시장이 태블릿PC의 본격적인 보급에 힘입어 중대형 사이즈로 확대된 것이다.

ATM, POS 등 산업용 단말기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터치스크린은 2006~2007년 네비게이션, 2008~2009년 휴대폰에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1차, 2차 성장기를 맞았으며, 2010~2011년에는 태블릿PC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3차 성장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필두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HP의 슬레이트, RIM의 플레이북 등 주요 세트업체들이 태블릿PC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아이패드로 인해 시장성이 검증된 태블릿PC는 넷북 시장을 잠식하며 대표적인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태블릿PC에는 터치스크린이 필수사양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넷북이 태블릿PC로 대체되는 것은 터치스크린 산업의 성장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티엘아이	062860	디스플레이용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업체로 터치스크린용 ROIC(Read Out IC) 개발	1.35
멜파스	096640	국내 유일의 터치센서칩 설계업체. 터치센서칩, 터치스크린 모듈 등 정전용량방식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 삼성전자내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점유율 30%. 삼성전자 정전용량방식의 핵심기술이 터치센터칩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원스톱솔루션 제공으로 수율과 대응력면에서 경쟁업체 압도. 이 외에도 LG 전자, HTC를 비롯 팬택, 샤프, 교세라 등 10여 개사에 납품 중	1.31
에스맥	097780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패널 전문 제조 업체로 삼성전자의 첫번째 태블릿 PC인 갤럭시탭에 터치패널 공급업체로 선정. 터치패널 업체 중 최초로 해외 생산 승인을 획득해 중국 법인은 현재 3인치 휴대폰용 터치패널 생산	1.21
미성포리테크	094700	휴대폰용 키패드 제조 전문기업. 촉각센서와 터치스크린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전용량 방식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 취득	1.16
시노펙스	025320	핸드폰 부품 제조 전문기업. 정전용량방식 신기술 확보로 물량 확대 및 수익성 개선. 터치패널의 원재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O필름과 강화유리의 내재화 시도	1.07
디지텍시스템	091690	휴대폰용 터치패널 전문 제조업체로 저항막 방식의 국내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기업. 휴대폰용 정전용량 방식 터치패널 공급 확대 본격화로 저항막 방식에서 정전용량 방식으로 주력 제품 이동 중	0.97
상보	027580	기존 ITO필름 생산공정보다 50%이상 단가절감이 가능한 CNT필름을 활용한 터치패널 사업 추진	0.95
이엘케이	094190	터치스크린 업체로 LG전자 및 Motorola 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 강화유리 내재화를 통해 매출처 다변화 성공	0.93
오텍	067170	특장차 제조업체로 한국터치스크린 지분 23.5% 보유	0.91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LED용 사파이어 기판과 터치패널 전문 제조업체로 갤럭시탭 터치 모듈의 약 40% 가량 납품. 터치센서 내재화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율 유지	0.86
토비스	051360	중소형 TFT-LCD모듈 및 산업용 모니터 전문 제조 업체로 LG전자향 터치패널 양산	0.81
모린스	110310	삼성전자향 저항막 터치패널 공급업체로 터치패널 트렌드가 저항막 방식에서 정전용량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구미에 400억원을 투자해 정전용량 터치패널 공장 완공. 샘플테스트와 공정 안정화 작업 진행 중	0.79
캠트로닉스	089010	디스플레이용 PBA 전문기업으로 터치패널 부품인 터치 보드 생산. 자체기술로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 IC 개발	0.53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1924년 이후 4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스포츠 제전으로 주로 2월에 개최된다. 동계올림픽 대회는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6개국 25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제18회 일본 나가노, 2002년 제19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2010년 제21회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까지 이어졌다. 1924년부터 매 동계올림픽에서 시행된 종목으로는 크로스컨트리,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도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998년 서울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2011년 육상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4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국가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지방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의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아져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평창유치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경제적 유발효과는 20조 4,973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8조 7,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통해 약 2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평창외 프랑스 안시, 독일 뮌헨 등이 국제올림픽 위원회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IOC 평가위원회는 2011년 2월 중순경 현지 실사 작업을 벌이며 5월 중순에는 각 도시별로 IOC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진행할 전망이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오는 7월 6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현대시멘트	006390	레저사업을 겸업중인 시멘트업체로 성우리조트(스키장, 콘도), 오스타(골프장)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2009년 시멘트업계 국내시장점유율 10.2%, 레저사업부문 국내 시장점유율 12.2%	1.38
모헨즈	006920	충남지역 기반의 레미콘 제조 및 시멘트 판매업체 강원도 토종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덕원산업의 최대주주	1.37
IB스포츠	011420	스포츠와 관련된 중계권 판매, 마케팅 사업 영위. MLB, KBL, WWE, UFC, IAAF 등의 방송 중계권 보유	1.27
동양메이저	001520	건재사업(레미콘)과 건설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동양매직, 동양시스템즈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동양그룹의 실질적 지주 회사 08년5월 한일합섬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섬유사업도 영위 최대주주는 동양레저 외(47.69%)	1.25
디지털텍	038340	콘덴서 및 전자철판 제조,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운영사업 등을 영위	1.20
케이엠	083550	반도체 및 LCD용 클린룸에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일반 산업용 안전용품, 소모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1.10
쌍용양회	003410	시멘트사업과 레미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쌍용계열 업체로 국내 시멘트 업계 시장점유율 선두에 있음. 주유소사업을 통해 석유류제품도 판매. 강원 동해와 영월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음	1.07
쌍용정보통신	010280	쌍용계열의 시스템통합(SI)업체로 통신, 방송 등 컨버전스 사업, 스포츠SI 사업에 주력. 스포츠경기 및 국제행사 운영 시스템에서 두각을 보임. 93년 대전엑스포, 00년 서울 ASEM 국제 회의, 05년 부산APEC정상회의 등 종합정보시스템과 06년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 대회운영 및 경기운영 등을 수행한 바 있음. 최대주주는 쌍용양회(77.7%)	1.03
동원	003580	해사사업 및 자원개발업 영위기업	0.95
SBS콘텐츠허브	046140	SBS방송프로그램, 영화, 음악(영상), 온라인게임 등의 콘텐츠 유통사업, 드라마OST, DVD제작/판매 등의 수익사업, 배너광고 및 동영상 광고 등의 인터넷광고 사업 등을 영위	0.93
삼양식품	003230	라면, 스낵과 유제품 등 제조업체	0.72
강원랜드	035250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업체 골프장, 스키장 개설로 종합리조트사로 변모	0.65
SBS	034120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민영 방송사	0.63
제일기획	030000	삼성그룹 계열의 국내 1위 종합광고대행업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광고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 적인 영업기반 보유	0.44

하이브리드카/전기차(2차 전지)

아직까지 실생활이나 주위도로에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전기차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하고 전기차 운행 가능/불능 지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비싼 차량 가격과 숨은 비용인 배터리 감가상각비와 할증 보험료 등 비용 부담이 커 소비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도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클린디젤에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수소연료 자동차로 그린카가 단계별로 진화하면서 발생할 시행착오 및 장기 대체 가능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뿐 아니라 생산자들의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지만 그린카의 개발과 상용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그 과정에서 전기 완성차의 대중화 시대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린카 진화 단계를 관통하고 있는 2차전지 테마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차전지를 제 2의 반도체 및 LCD 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이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다(삼성SDI, LG화학 등 한국업체 점유율은 38%).

그린카의 현주소는 하이브리드 단계로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성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가속화되어 2015년에 총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카에는 니켈수소 타입의 2차전지가 탑재되는 것이 트렌드였지만 최근에는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배터리 등 진일보한 2차전지를 탑재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100% 모터의 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전기차의 경우 초기부터 리튬이온을 장착하고 있다.

2차전지는 니켈수소,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기술개발로 과거의 낮은 사양의 2차전지가 사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그먼트별로 적합한 기술수준의 배터리를 바탕으로 각각의 시장이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리튬이온의 활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저사양의 납축전지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bike, 전동지게차 등 또 다른 시장의 세그먼트에 맞게 포지셔닝되어 다종의 2차전지들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코디에스	080530	LCD용 Probe Unit 전문제조업체. 2008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아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급속충전기 개발. 서울시 월드컵 상암경기장, 서울대공원, GM대우, CT&T 등으로 상용화한 급속충전기 보급 실적	1.79
넥스콘테크	038990	매출의 90% 이상은 휴대폰용 PCM과 노트북용 SM에서 발생하고 있음. '2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업체'를 목표로 배터리팩 및 배터리관리시스템(BMS)로 사업영역 확대 및 충전기 분야로 진출 계획	1.18
파워로직스	047310	매출의 49%가 PCM, 19%가 SM에서 발생. 그 외 CM(Camera Module)이나 AM-OLED Module을 개발	1.08
기아차	000270	포르테 하이브리드 출시. 2010 파리모터쇼에서 전기 콘셉트카 '팝(POP)' 공개. 18kwh 리튬 폴리머 겔 배터리 적용하였고 최고 속도 140km/h, 한번 충전시 160km 주행 가능	0.56
현대차	005380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 i10를 베이스로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 모델개발. 전기차 i10은 16kwh의 리튬폴리머 전지를 채택. 2010년 8월 30대를 시범운행 한 후 2011년부터 300~500대 양산할 계획	0.49
LG화학	051910	리튬이온 전지 분야에서 GM, Ford, 현대기아차, 볼보자동차 등을 고객사로 확보. 1조원을 투자하여 충북 오창공장의 생산능력을 2013년까지 850만셀에서 6,000만셀로 확장 중	0.61
삼성SDI	006400	독일 보쉬와 합작하여 만든 SB리모티브의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생산규모를 2015년까지 18만대 분으로 늘릴 계획	0.52
상신이디피	091580	2차전지 내용물을 안전하게 담는 역할을 하는 캔 제조	1.05
CT&T	050470	전기완성차(e-ZONE: 저속전기차, c-ZONE: 골프 카트, 유틸리티 카) 개발, 제조, 판매업. 아직까지 수입의 대부분은 c-ZONE에서 발생	1.78
AD모터스	038120	저속 전기차(CHARGE) 개발 및 판매. 2010년 9월말부터 판매를 실시하여 GS칼텍스, KT, KT렌탈 등과 매출계약	2.09
엘앤에프	066970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2010년 기준 양극활물질 외 제품 매출비중은 67.1%	0.94
세방전지	004490	자동차용 축전지 생산업체. 축전지 제조업이 총 매출액의 90% 이상을 초과하는 지배적 단일사업 영위	0.47
삼화콘덴서	001820	콘덴서 제조업체. 신규사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DC_LINK 커패시터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세라믹 커패시터 모듈 개발	0.79
한화케미칼	009830	2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사업 진출	0.65

한미 FTA/한-EU FTA/한-인도 CEPA

FTA는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국 간 자유 무역을 담보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협상 타결과 동년 6월 공식합의문 서명으로 양국간 공식적인 실무절차를 마쳤으나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이 제기되며 이후 3년 반 이상 양국 의회 비준 동의를 미뤄져왔다. 하지만 2010년 12월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제자리에 멈춰 있던 한미 FTA가 발효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됐다. 한미 양국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 연기, 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유예기간 연장, 기업 내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위해 이번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2년이면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세계 3대 시장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한-EU FTA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11년 7월 1일에는 공식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파급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 10월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한-EU FTA는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했거나 이미 발효된 어떤 FTA보다도 경제적 의미가 큰 FTA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더욱이 EU는 평균 관세율이 5.6%로 미국(3.5%)보다 높은 것은 물론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아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수출품들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는 가시적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2010년 1월1일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된 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대폭 늘었으며 특히 수출은 전년에 비해 45% 이상 증가, 역대 최대치를 이미 넘어섰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인도간 FTA인 CEPA가 발효된 이후 11개월간 대(對)인도 교역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5% 증가한 156억달러로, 수출이 45.3% 늘어난 104달러, 수입은 43.1% 증가한 52억달러에 달했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평화정공	043370	한-EU FTA로 EU 수출관세 3.0~4.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GM으로의 직수출 증가 전망	1.74
성우하이텍	015750	Bumper rail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EU 수출관세 3.0~4.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비준 시 미국공장으로 조달되는 국내부품 관세 4.0% 즉시 철폐 효과 기대	1.65
세종공업	033530	한-EU FTA로 EU 수출관세 3.0~4.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현대차 미국공장으로 수출 증가 기대	1.60
아시아나항공	020560	한-EU, 한미간 여행 수요 증가로 수혜 예상	1.45
기아차	000270	한-EU FTA로 관세환급 300유로 포함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가격경쟁력 확보 및 미국 시장 공략 강화	1.23
현대차	005380	한-EU FTA로 관세환급 300유로 포함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가격경쟁력 확보 및 미국 시장 공략 강화	1.15
한라공조	018880	한-EU FTA로 EU 수출관세 3.0~4.5% 인하 효과 기대	1.14
금호타이어	073240	한-EU FTA로 EU 수출관세 4.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미국수출 관세 2.5%~4.0% 인하 효과 긍정적	1.14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한-EU FTA로 공작기계부문의 관세폐지 전망	1.12
현대모비스	012330	한-EU FTA로 수출관세 3.0~4.5% 인하 효과 기대.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듈 및 AS부품 수혜. 한미 FTA 비준 시 미국공장 으로 조달되는 국내부품 관세 4.0% 즉시 철폐 효과 기대	1.06
한국타이어	000240	한-EU FTA로 EU 수출관세 4.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미국수출 관세 2.5%~4.0% 인하 효과 긍정적	1.02
대한항공	003490	한-EU, 한미간 여행 수요 증가로 수혜 예상	0.91
한진해운	117930	한-EU, 한미간 무역 활성화로 물동량 증가 기대	0.90
효성	004800	폴리에스테르섬유부문 EU 수출관세 4.0% 인하 효과 기대. 한미FTA 비준시 반덤핑조치 우려 완화	0.83
현대중공업	009540	EU 수출관세 인하 효과로 가격 경쟁력 확보 기대	0.76
제일모직	001300	ABS수지부문 EU 수출관세 6.5% 인하 효과 기대 한미 FTA 비준 시 섬유, 패션 부문의 수혜 예상	0.69
삼성전자	005930	TV부문 EU 수출관세 14% 인하 효과 기대 직수출 물량 경쟁력 확보	0.59
도이치모터스	067990	8%의 수입관세 폐지효과로 BMW 국내 판매 증가 기대	0.57
대한통운	000120	내륙운송 업체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물동량 증가 예상	0.53
LG전자	066570	TV부문 EU 수출관세 14% 인하 효과 기대 직수출 물량 경쟁력 확보	0.50
녹십자	006280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주요 수익원인 복제의약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0.42

환경(유해가스저감/탄소배출권)

환경산업이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 정도를 측정하며, 악화된 환경을 개선·복원시키는데 투입되는 모든 제품과 설비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총 인구의 49.6%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41%, 자동차 등록대수의 43%가 집중되는 등 대기오염 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동경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1.6~4.8배 높고,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 대기오염이 심각(1.3~1.6배)한 상황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정장애, 건강피해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해되자 정부는 2008년부터 대기환경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11년 들어 대책을 재정비, 2014년까지 총 4조 8,501억원을 투자하는 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 2차 기본계획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추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 추진과 추가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 이상 감축해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한솔홈데코	02575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인증. 포름알데히드를 줄인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1.66
코엔텍	029960	울산지역의 폐기물 배출업체 및 지역상공인의 참여 하에 설립된 산업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1.50
에코프로	086520	탈취 및 폐가스 처리 등 대기오염 방지용 소재 및 부품 생산	1.50
유니슨	018000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유니슨하이테크 지분 100% 보유	1.38
서울식품	004410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조기 제작 및 동 시설의 위탁관리	1.27
서희건설	035890	쓰레기 매립장의 폐가스 발전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 진행	1.24
KC그린홀딩스	009440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을 영위하는 대기관련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KC코트렐을 자회사로 보유	1.24
후성	093370	국내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매출 발생 기업, 에어컨 냉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를 줄여 수익 창출	1.18
이룸지엔지	050640	저공해(LPG)엔진개조사업과 LNG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사업 영위. 향후 매연저감장치 사업, 전기차 엔진개조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 할 예정	1.08
포휴먼	049690	디젤자동차 배기가스저감장치 판매,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	1.08
영진인프라	053330	환경관련 수처리장비 전문 설비제조업체	1.04
자연과환경	043910	환경복원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전문제조업체	0.98
와이엔텍	067900	광주/전남 지역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로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업 영위	0.96
인선이엔티	06015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전문업체	0.96
카프로	006380	카프로락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아산화질소의 저감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 진출 추진 중	0.89
이건산업	008250	기존 산업용 조림분야에 탄소배출권을 결합시킨 혼합조림으로 사업영역 확대	0.88
일진전기	103590	전선, 변압기 생산업체로 매연저감장치 제조	0.87
에코에너지홀딩스	038870	매립가스 및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에너지를 자회사로 보유	0.84
에코솔루션	052510	토양오염 복원 용역업체로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증설 완료	0.81
LG상사	001120	2009년 2월 세계 최초로 LCD 생산공정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식을 UN에서 승인함에 따라 연간 50만톤 가량의 탄소배출권 확보	0.78
세종공업	033530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및 유해가스 저감 장치 제조 및 판매	0.73
젠트로	083660	수처리 환경 관련 제품 제조기업으로 친환경 페인트 개발	0.64
휴켄스	069260	질산공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 저감으로 200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0.51
스페코	013810	아스콘 폐제를 이용한 리사이클링 아스팔트 플랜트 취급	NA

희소금속

양은 많지 않지만 현대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공업의 조미료’, ‘첨단산업의 비타민’등으로 불리고 있는 희소금속은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 중 가장 많은 36.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19.3%), 미국(13.2%)이 뒤를 잇고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기 이전에는 미국이 생산을 주도했었지만 채산성이 좋지 않아 문을 닫는 광산이 늘어났으며, 특히 희소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중국 이외에 희소금속 매장량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등, 공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공급 시장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희귀금속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희소금속 수출 제한 조치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은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중국정부는 희소금속 탐사 및 채굴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소수 국유기업만 희소금속 채굴·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는 등 희소금속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IT 산업 발전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글로벌 트렌드로 인해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소금속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불안감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희소금속의 연간 생산량의 대부분이 소비되고 있어, 현 추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공급 측면의 불안요소가 확산될 경우 희소금속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국내외 탐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 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희소금속 안정적 확보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우선 희소금속 중에서 리튬·희토류 등 2~3개 희소금속을 ‘신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대상자원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6년까지 핵심 희소금속 및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크롬, 몰리브덴 등 8종, 7만6천을 비축하기 위해 군장 국가산업단지 내 희토류 비축을 위한 특수창고 1동(3천300m³), 기타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일반창고 1동(1만3천530m³)을 내년까지 건설한다.

이밖에 정부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부존(36%)[^]생산(97%)국가인 중국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광산 개발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이자 최고의 소재기술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원광 정제 및 가공 기술 확보, 아프리카 부존광물에 대한 패키지형 개발 및 공동탐사, 중국 및 중앙아시아 현지 가공시설 투자 등이 중점 추진된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폴리비전	032980	카자흐스탄의 카리타스 광산에 대한 사업권 보유 회사인 Capgold사의 지분(54.3%) 보유	1.78
케이앤크퍼니	053590	실리콘 원료인 규사를 활용해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인 쏘라텍社의 지분을 보유	1.38
한진피앤씨	061460	잠비아 KZ코퍼레이션에 10억 출자, 지분 70% 취득 구리, 우라늄 등 광산자원 개발 추진	1.38
3노드디지털	900010	심천3노드전자유한공사의 역외지주회사로서 중국 허난성 현지에 마그네슘 강산을 소유	1.33
동양강철	001780	베트남의 에너지 및 자원분야 협력 확대 정책에 따라 베트남 에서 알루미늄 60만톤 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	1.02
유니온	000910	2008년부터 바나듐, 몰리브덴 등 유가금속 회수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에너텍社와 공동으로 페로니켈 제련회사에 지배주주로 참여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1.01
삼화전자	011230	고주파용 자성재료인 희귀금속 페라이트코어 생산	0.90
EG	037370	고주파용 자성재료인 희귀금속 페라이트코어 생산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최대주주	0.89
동원	003580	충북 제천 소재 몰리브덴 광산 개발. 바다모래 채취, 가공사업 영위	0.82
LG상사	001120	자원개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가 풍부한 업체로서, 리튬, 희토류 금속과 같은 해외광산 신규 개발 업체	0.63
대우인터내셔널	047050	POSCO의 자회사로, 최근 POSCO가 LG상사와 희귀금속 광산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	0.61
대원화성	024890	2008년 현지 합작 투자 법인을 통해 캐나다 몰리브덴 광산 개발권 지분을 21%를 보유	0.48
삼정피앤에이	009520	철강제품 포장 전문 업체였으나 최근 POSCO의 지분 투자로 희귀광물로 알려진 페로실리콘알루미늄, 몰리브덴 전문 취급업체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음	0.23

히든챔피언(강소기업)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은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시장을 이끄는 강소기업을 일컫는다. 즉 규모는 작지만, 특유의 기술력과 전문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기업으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장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몬 교수가 제시한 히든 챔피언 선정 요건은 1) 세계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이거나 2)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기업, 3) 매출액 규모 40억 달러 이하 기업으로, 원래 정의상으로는 이상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각 기관들은 이러한 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준용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10월 한국거래소는 시장지배력, 수익성, 기술력, 성장성, 재무안전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 시장의 히든챔피언 29개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선정된 히든챔피언의 기업 규모는 코스닥 전체 기업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유보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안전성 측면에서 월등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는 기업은행, 산업기술진흥원,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히든챔피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바 있는 세실이 대표이사의 횡령 등으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한 때 히든챔피언으로 촉망받았던 세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히든챔피언 선정시 대표이사의 도덕적 자질도 기준으로 포함하는 등 앞으로 히든챔피언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은 객관화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인터뷰 등의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엘엠에스	073110	프리즘 시트, 광픽업 부품 전문 기업으로 LED TV용 복합플레이트 신규사업 추진	1.92
미래나노텍	095500	디스플레이 부품소재(광학필름) 전문기업으로 신규사업인 도광판의 품질 승인 및 양산 가시화	1.57
슈프리마	094840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로 국내 보안업체 지문인식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 보유	1.40
DMS	068790	종합장비업체로 변신한 TFT-LCD 장비업체	1.34
네오피델리티	101400	반도체 설계전문 업체로 신규고객 다변화 추진. 도킹스테이션, 모니터TV시장에 신규제품 솔루션 출시 예정	1.26
이오테크닉스	039030	레이저 응용 장비업체	1.16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2710	LCD, 반도체용 전자재료 전문기업으로 2차전지 양극활물질 원료 소재인 전구체 분야 진출	1.16
에스앤에스텍	101490	국내 유일의 블랭크마스크 제조 업체	1.12
고영	098460	세계 1위 3D 검사장비 업체로 기존 시장에서 1위를 하던 미국의 싸이버옵틱스 추월	1.11
주성엔지니어링	036930	반도체 및 태양전지 등 장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LED 장비 사업 추진 중	1.11
KH바텍	060720	이동통신용 초정밀 부품제조 전문기업	1.11
모아텍	033200	스테핑모터 전문기업으로 엔고현상에 따른 일본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보유로 스테핑모터의 시장점유율 증가	1.05
뷰웍스	100120	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1.08
코텍	052330	산업용 컬러모니터 제조업체	1.03
아모텍	052710	칩바리스터 제조 선두 업체	1.02
한국정밀기계	101680	CNC수평보링기, 머시닝센터 등 대형공작기계 제조업체	1.01
에스피지	058610	국내시장점유율 1위 소형모터 제조업체	0.99
성광벤드	014620	철강관이음쇠 전문제조업체	0.96
알에프세미	096610	세계적인 마이크로폰용반도체(ECM) 칩 전문업체	0.86
바이오스페이스	041830	전자의료기기 및 생체의료측정기기 제조업체	0.69
메디톡스	086900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 남미시장 진출	0.64
해덕파워웨이	102210	선박방향타 제조 전문 기업	0.63
동일금속	109860	건설중장비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크롤러 크레인 및 초대형 굴삭기 부품 제조	0.61
OCI머티리얼즈	036490	반도체, TFT-LCD 공정용 가스 전문생산기업	0.58
넥스트칩	092600	영상처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0.54
아이디스	054800	디지털영상보안장치 제조 벤처기업	0.53
코메론	049430	국내 1위 금속제줄자 및 섬유제줄자 제조업체로 미국 시어스와 공급계약 체결	0.51
스타플렉스	115570	옥외광고용 소재 제조업체로 설비투자를 통한 원단 물량 내재화에 성공	NA

LTE(Long Term Evolution)

LTE(Long Term Evolution)-Advanced는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계열의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Advanced 기술이 상용화되면 350km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3D, 풀HD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지금보다 4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1년 1월 25일 정부 자금 552억원과 민간 자금 92억원을 5년간 투입해 개발한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는 이노와이어, 리스, 네스랩, 스핀텔레콤, 시스템인, 피플웍스, 넷커스터마이즈, 가인정보기술, 모비안, 시스템이트, KT 등으로 ETRI는 LTE-Advanced 기술을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개발 참여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ETRI는 이번 기술 개발로 국내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말 분야 세계 시장 40% 점유로 346조원,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 분야 15%의 세계시장 점유로 16조7000억원 등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의 LTE-Advanced 칩셋 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CDMA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원천기술 개발자인 퀄컴이 칩셋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3GPP, IEEE 등 해외 기구와 공조해 제안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Advanced’와 ‘Wibro- Evolution(IEEE802.16m)’의 국제 표준화 핵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2010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동통신 국제 표준회의의 결과 LTE-Advanced와 ‘Wibro- Evolution’이 4G 이동통신 국제표준 평가를 통과했다. ITU는 회원국에 대한 의견조율 및 합의를 거쳐 2011년 3월까지 두 기술에 대한 세부 표준규격 개발을 완료하고 2012년 2월 4G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올해내 LTE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Splint도 4G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대규모 장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ABI리서치에 따르면 원격무선장비 시장은 2014년 1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목명	코드	관련내용	12M
씨모텍	081090	무선 데이터카드 모뎀 제조업체. LTE 기반의 태블릿 PC와 무선인터넷 모뎀, 라우터, FMC 등을 개발해 와이브로시장에 이어 LTE시장에서의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추진	1.69
알에프텍	061040	이동통신단말기 부가제품 및 LED조명 제조업체. 삼성전자 LTE파트너 회사로 알려진 동사는 삼성전자 모바일LTE 단말기에 커넥트 어셈블리 공급	1.46
이노와이어	073490	무선망 시험장비 및 계측장비 전문 제조업체. LTE 및 와이브로 장비 개발. Agilent와 2013년 4월까지 LTE 계측장비개발 및 반제품 판매 계약 체결. LTE 상용화시 통신사업자의 품질검사 수요 발생 등에 힘입어 기존 주력제품인 시험장비 매출액 증가 전망	1.22
에이스테크	088800	단말기용, 기지국용 안테나 등 통신장비제조업체. 소형기지국 무선통신장비 RRH (Remote Radio Head: 원격 무선장비) 제조능력 보유. 글로벌장비업체인 노키아 지멘스네트웍스(NSN)에 LTE용 원격무선장비 공급 진행. 새로운 통신기기의 보급과 대규모 데이터트래픽 발생 등 4G 시장 활성화로 인한 RRH 시장 성장의 수혜주	1.11
다산네트웍스	039560	국내 대표적인 유선망 네트워크장비업체. 이통사에서 LTE 관련 네트워크망을 증설할 경우 유선구간도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 부각	0.99
케이엠더블유	032500	RF스위치, RF필터 등 이동통신기지국 핵심장비 제조업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통신시장이 요구하는 RF신제품을 꾸준히 출시, 와이브로와 LTE 등의 통신 방식에 상관없이 4G 통신망 투자 증가 시 수혜 예상	0.92
서원인텍	093920	휴대폰 키패드 제조 및 와이맥스 사업 영위기업. LTE 단말기 개발 완료, 2011년 2월 중 상용화 제품 출시 예정. 국내 및 중동, 중남미,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프로모션 추진	0.77
웨이브일렉트로	095270	이동통신시스템용 전력증폭기 및 원격무선장비 전문업체. 삼성전자 및 일본 히타치 등에 공급 중인 LTE용 RRH (Remote Radio Head: 원격 무선장비)로 미국시장에 진출 예정. 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LTE용 RRH 개발을 마무리하고 시제품을 생산 중이며 상반기 중 본격적인 공급 기대	0.72
와이솔	122990	Saw filter(휴대폰 통신에서 특정 주파수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부품), Duplexer(송신신호와 수신신호를 분리해주는 부품) 등 무선주파수(RF)솔루션 제품 생산업체. LTE 등 4세대 이동통신방식이 본격화하면 Saw filter 와 Duplexer 가 2~3배 더 소요될 전망	0.11